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통권 98호
2013. 03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씩씩한 어린이집 / 해바라기 방과후
<http://siksikan.gongdong.or.kr/>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나누며 사는 사회

아이들의 해맑은 꿈과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은

살아있는 생명인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세계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1995년 8월에 개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이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마음껏 뒹굴고 놀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몸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 안에서 배우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어울리고 이웃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다란 삶의 놀이터’이자

‘열린 공동체’가 바로 대구 공동육아 협동조합

‘씩씩한 어린이집’과 ‘해바라기 방과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64-6
053-791-6879(씩씩한 어린이집)
053-793-6879(해바라기 방과후)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대구 공동육아 협동 조합

병이 나다.

정범철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장, 해바라기 정해균/수아아빠

요 며칠 감기몸살 때문에 심하게 아팠다.

병이 날만도 했다.

생각해보니 아무 일 없이 쉬어본 날이 거의 없다.

성격 탓이기도 하거니와 회사일, 터전일 등등 끊임없이 스케줄이 잡혀있었다.

등산, 수영, 자전거타기 요즘은 드림도 배우러 다닌다.

여기에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니 항상 끝나고는 뒤풀이해야 하고, 터전 회의만 해도 조합 이사회, 각 기관 이사회, 통합 이사회... 이것저것 챙기고 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올해 터전 이사회 구성을 보면 이사를 해본 사람이 조합장과 썩 운영 이사 두 명 뿐이라서 내심 걱정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몇 번의 회의를 해보니 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우리 조합원들은 역량이 대단한 것 같다. 침인데도 어찌 이리 잘하시는지.....

올해 조합장이라는 큰 책임을 지게 되니 맘에도 부담이 좀 된 것 같고, 또 잘 해보려고 이것저것 처음이라 열심히 하려다보니 일을 만들어한 측면도 있는 듯하다

회사에서는 사실 지하철 기관사일이 그리 어렵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은 아니나 한번씩 열차사고 또는 사상사고, 승객 민원발생 등이 큰 부담으로 오기도 한다.

이런 부담보다도 회사 노동 조합일을 하다 보니 일보다는 노조일이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누구나 다 내 마음 같으면 일 하기도 쉽고 뭔가를 추진하기도 쉬운데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보니 무슨 일을 하고나서도 좋은 말을 기대하긴 어렵다. 욕 먹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고, 그나마 아무 말이 없으면 큰 다행이다.

공동육아 이사를 하는 것이나, 회사 노조간부를 하는 것이나 둘 다 어렵고, 귀찮고 하지만 내가 아니면 또 누가 하겠노?...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둘 다 같이 하는 건 진짜 너무 바쁘고 몸이 따라가질 못하는 것 같다. 지금 후회가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조합장 탄핵할 수 있는지 정관을 좀 찾아봐야겠다.....^^

공동육아 7년



올해로 공동육아를 한지 7년째다.

나의 30대를 공동육아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선택한 것이지만 사실 아이보다는 내가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깊어진 것 같다. 공동육아를 하자고 아내가 처음 말 했을 때는 아이에게 그런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냐고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아내를 이길 수는 없었다 ^^::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사람들과 어울리고 노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선배들이 술자리마다 다 나를 불러 주었다. 왜냐면 아내가 공동육아 아빠들과 술마시는 자리는 아무 말도 안하고 다 보내주었기 때문에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 나오는 사람으로 각인돼 있는데다 술도 잘 마시고 많이 마셨기 때문이다.

술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는 모두 아이들 이야기와 터전 이야기였고 여기에서 내가 아주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매우 가부장적이었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갔고,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 갔다. 학교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주식, 집, 대출, 돈, 투자 이런 이야기들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하고 따분해 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지내왔다.

그게 벌써 7년이다.....  + 

| 씩씩한 어린이집 |

조운정, 노승복, 정현주, 황태순, 박미정
(체리, 나비, 아침, 벚꽃, 다람쥐)

- ✿ 이 달의 주제 : 새로운 시작
- ✿ 이 달의 세시와 절기 : 경칩, 춘분
- ✿ 이 달의 노래 : 씨감자, 봄아 어서 온나, 봄비
- ✿ 전래동요 : 까치, 쥐야 쥐야
- ✿ 전래놀이 : 우리 집에 왜 왔니, 사방치기, 팔자놀이, 달팽이

씨감자

감자 씨는 묵은 감자,
칼로 썰어 심는다.
토막토막 자른 자리
재를 묻혀 심는다.
밭 가득 심고 나면
날 저물어 달밤
감자는 아픈 몸
흙을 덮고 자네
오다가 돌아보면
흰한 밭골에
달빛이 내려와서
입 맞춰 주고 있네.

까치

까까 어디가? 서울 가
뭐하러가? 알 낳으러가
몇 낳어? 십 낳았어.
나 하나쥐 그까지 거 뭐해?
볶아먹고 지저먹고 그러지
너희 집이 어디야?
한강건너 뒷산건너 꼭하고 건너갔대.

쥐야 쥐야

쥐야쥐야 어디에서 잤니? 부뚜막에 잤다
뭐 덮고 잤니? 행주덮고 잤다
뭐 베고 잤니? 젓가락 베고 잤다
뭐가 깨물더냐? 고양이가 깨물더라
무슨 피가 났니? 빨간피가 났다!

❁ 교사회 일정

출근시간

07:30	벚꽃
08:30	다람쥐
08:40	달사탕
09:00	체리
09:30	나비
09:50	아침

❁ 행사

9(토)~10(일)	신입 이사회 워크샵 (영덕)
15(금)	정기총회
17(일)	대청소

❁ 교육 및 회의

6(수)	대구지역대표교사회의 , 오후 5시 - 체리
7(목)	장애통합프로그램 협약식, 오후 3시 - 체리
15(금)	교사교육 (5시부터 아마 부탁드립니다.)
19(화)	신입교사교육, 오후 7시 , (씩씩한 & 해바라기)
22(목)	교사 긴 회의 , (5시부터 아마 필요함)
26 혹은 20	교사 간담회, (이사회 & 교사회)

❁ 전달사항

- 아침 열기 시간(9시 50분) 전에 등원 부탁드립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아마요청

- 15일(금) 5시부터 ~
- 22일(목) 5시부터 ~

● 씩씩한 어린이집_3월 교육일정

3월 씩씩한 교육일정

	월	화	수	목	금
1주					1(삼일절)
2주 방모임주간	4 · 차모듬 · 각방나들이 · 조민주, 우서 현 등원	5(경칩) · 대동놀이 · 각방나들이	6 · 전체 나들이	7 · 전체 나들이 · 박서희 생일	8 · 안전교육 · 단기 모듬
3주 소위모임주간	11 · 차모듬 · 각방나들이	12 · 대동놀이 · 각방나들이	13 · 전체 나들이	14 · 전체 나들이	15 · 기본생활교육 · 단기 모듬 · 정기총회
4주 봄맞이대청소	18 · 차모듬 · 각방나들이	19 · 대동놀이 · 각방나들이	20(춘분) · 전체 나들이	21 · 전체 나들이	22 · 먹거리 교육 · 단기 모듬
5주	25 · 차모듬 · 각방나들이	26 · 대동놀이 · 각방나들이	27 · 전체 나들이	28 · 전체 나들이	29 · 소방 교육 · 단기 모듬
메모	※ 수요일 전체 나들이 장소는 날씨와 자연물의 변화에 따라 주차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박새방 돌아보기

노승복(씩씩한 나비)

☘ 방구성원

4세 : 김건우, 김도은, 문송주, 박서희

3/4 등원 예정 : 조민주, 우서현

☘ 2월 4일 송주, 도은이 첫 등원

터전의 귀염둥이 막내들이 차례차례 등원하고 있다. 자주 놀러오던 터전이지만 첫 등원 모습은 약간 긴장한 듯 보였다.

열기 때 “예쁜 송주 어디 있나?” “요기!!”

“체조 잘 하는 도은 어디 있나?” “요기!!” 각자 소개를 하고 살짝 미소를 띠며 하루 활동이 시작되었다.

송주는 놀이 도중에 엄마를 조금씩 찾았다. 하지만 점심식사 후에는 언니들과 어울려 잘 놀다. 지금은 현관에서 엄마에게 손 흔들며 인사하고 잠바 벗으러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긴다.

열기시간에만 점잖은 도은이, 누나랑 씩씩하게 등원해서 외투를 벗으면 바구니에 넣어야 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꼭 방에 담아두고 내려와서 차분히 앉아서 듣고 체조도 곧잘 따라한다.

☘ 2월13일 건우, 서희 첫 등원

서희도 채희언니랑 같이 등원을 해서 울음 없이 무사히 등원했다. 언니랑 놀기 위해서 줄줄 따라다니는 모습이 귀여웠지만, 나들이시간에는 의도적으로 친구와 놀 수 있도록 하려고 나비 손을 잡고 나들이를 갔다. 도착해서도 나비 손만 찾았다. 터전에서 나비에게 요구사항도 많아졌다. 송주 못지않게 무릎위에 앉기를 좋아한다. 건우는 터전에서 걸어 다니지를 않

는다. 상과 상 사이를 뛰어다니고 형님들을 쫓아서 또 열심히 뛰어다닌다. 엄마와 헤어질 때면 몸부림도 크고 울음소리도 크다. 그래도 2층으로 데려오면 종이블록와 형님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빠르게 엄마를 잊고 잘 논다. 아직도 중간 중간에 종종 엄마를 찾는 모습을 보이지만, 나들이를 가면 뛰어 놀기에 정신이 없다. 하지만 요즘은 엄마와 손을 흔들고 잘 헤어져서 안도하고 있다.

☘ 나들이

4세 아이들 모두 등원을 한 상태가 아니라서 우리끼리의 놀이는 시작하지 못하고 형님들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 그 자체를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한다. 문경이는 송주의 손을 잡고, 지호는 “내동생♥”하고 자랑하며 도은이 손을 잡고 싶어 하지만 도은이는 누나의 마음도 모른 채 손을 잡지 않고 혼자서 씩씩하게 뒷짐을 지고 걸어간다. 매호공원에 도착해서는 언니 오빠들은 여러 가지 운동기구 및 공원 전체를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미끄럼틀 주위를 떠나지 않는다. 똑바로 앉아서 내려오고, 옆드려서 내려오기도 하고, 괜히 “나비!!” 하고 미끄럼틀 꼭대기에서 불러보기도 한다. 가냘픈 송주는 나들이를 갈 때에는 씩씩하게 걸어갔지만 터전으로 돌아 올 때에는 힘들어 하며 안긴 채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쯤이면 송주가 안아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될까?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천방지축 건우는 처음에 출발할 때 맨 앞에서 앞질러 뛰어 가는 바람에 바로 제재를 시킬 수 밖에 없었다. “뛰면 안 돼!”하고 가르쳐 주고 나니 그 후로는 출발할 때면 항상 손을 잡는다. 잠시 후 손을 놓아도 뛰거나 먼저 앞서가지 않는다. 건우의 단짝인 태오형을 만났다.

고산중학교에 나들이를 갔을 때 태오와 건우는 행동을 똑같이 했다. 둘이서 막대기를 들고 뛰고, 설 때도 함께 땅바닥에 벌러덩 누워서 쉬더니, 건우가 살짝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태오가 울기 시작했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안해~”사과를 했다. 이후 건우는 터전에서 태오형을 보기만 해도 웃음을 짓는다. 서로 마음에 꼭 든 모양이다^^

언니와 놀던 서희도 나비와 손을 잡고 함께 나들이를 갔다. 중심사 아래의 사직단에 도착해서도 “나비, 잡기 놀이해”하며 건우와 도은이도 함께 열심히 쫓는다. 서희는 금방 힘들어해서 쉬고 싶어할 때도 많지만 또 금세 다시 아이들과 함께 뛰어논다. 언니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팽이놀이’ 등을 하고 놀지만 아직 우리수준에는 조금 어려워서 우리들은 잡기놀이를 하고 놀다가 지치면 쉬기도 하고 또 뛰어다니는데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참 재미있어하는 것 같다.

☺ 점심, 간식

반찬통을 가져오면 직접 하고 싶어 하면서 집계를 잡는다. 어설피게 상 위에 흘리기도 하면서 가득 담아가는 건우와 차분히 하나씩만 담아가는 서희와 송주를 보면 이때 아이들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다. 반찬을 골고루 그릇에 담아가지만 싫어하는 반찬이 있으면 절대로 먹지 않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에게 음식의 좋은 점을 설명하고 다독인다면 편식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조금씩 억지로 먹이지 않고 있다. 조금 지나면 다른 언니 오빠들처럼 서로서로 잘 먹을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도 쉽게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혼자서 잘 먹지만, 조금 지나면 주위가 산만해져서 밥을 먹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면 종종 밥을 직접 먹여주기도 한다. 도은이는 아토피가 있어서 점심을 직접 싸서 온다. 국건더기와 냉이무침을 한 가득씩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대견하다. 서희와 건우는 고등어조림을 매우 좋아했다. 직접 입안의 작은 가시들을 발라가며 밥을 두 그릇씩이나 맛있게 먹었다.

☺ 낮잠

점심 식사 후에는 엄마를 찾지 않고 언니 오빠들과 섞여서 열심히 잘 논다. 언니오빠들이 먼저 낮잠준비를 하러 각자 방에 들어가고, 박새방도 몸쉬기를 하러 간다.

나비의 손을 잡고 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보면 한 명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칭얼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들 따라서 울음 섞인 애처로운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처음에는 책 한권을 읽어주면서 자유롭게 앉거나 누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추어 주고 나면, 잠이 와서 스르르 혼자 눕는 아이도 있다. 잠이 온다며 책을 읽는 도중에 칭얼거리는 아이가 있으면 또 시끄럽다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아이도 있다. 그렇게 서로서로 조용히 하다가 꿈나라로 간다.

서희는 채희언니와 돈독한 자매애를 사랑하며 처음에는 딱따구리방과 박새방을 오가며 꼭 안고 잤지만, 어느 날부터는 한 방에서 자더라도 예전처럼 꼭 붙어 잠들지는 않는다. 조금씩 떨어져서 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은준이도 함께 자기를 바랬다. 그래서 채희와 은준이가 함께 박새방에서 자던 날, 좋아서 방방 뛰고 소리도 지르면서 놀다가 편안한 기분으로 다 같이 잠이 들었다. 이 날은 모두들 엄마를 찾지 않았다.

☺ 만두 만들기

설을 맞이하여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빚기’ 이야기를 듣고 만두 만들기를 했다

송주는 만두를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에 만두소를 조금씩 넣고 돌돌 말아서 후딱후딱 만두를 만든다. 만두는 속이 짝 차야 맛이 있는데, 송주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송주는 가장자리에 스스로 물을 바르며 속을 넣는 반면 도은이는 “나비 물 묻혀줘”하고 기다린다. 남자답게 만두가 가득 넘치게 소를 넣는다. 도움을 주려하면 싫어한다. 함께 만들어 오후간식으로 먹었지만 도은이는 아토피로 먹을 수가 없어서 미안했다.


☺ 찰흙놀이


손으로 조물조물 만지는 것은 좋아한다. 송주와 도은이 둘이서 놀면 재미가 없다고 딱따구리방 찰흙놀이에 끼어들었다. 진지하게 앉아서 주로 먹을 것을 만들어 냈다. 아이스크림, 버섯, 콩알 떡도 만들고 동글동글하게 달팽이도 만들었다.

☺ 점토놀이

손에 묻지 않는 하얀 점토!! 모든 아이들이 좋아한다. 서희는 아직은 정확한 모양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나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자꾸만 만들어 달라고 한다. 건우, 도은이는 동게 만들어 벽에 던지고 공처럼 가지고 놀았다.

☺ 3월이면

서현이, 민주가 응원한다. 박새방 6명이 모두 함께한다. 조금 벽찬 감은 있지만 천천히 기본 생활을 익히며 터전 생활에 익숙해질 것이다. 아직 우리끼리의 나들이는 힘든 길이라 생각되어 어느 정도 익숙해 질 때까지는 형님들이 귀찮아할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따라다닐 생각이다. 

로 시작하기위해 바구니장도 밖으로 내고, 피아노 위치도 바꾸고 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대부분이 2층에서 생활을 했던 터라 옷 갖다놓으러 아이들이나 부모님은 여전히 2층을 오른다. 문경이는 “벚꽃은 나를 좋아하나봐. 왜 자꾸 같은 방이 되지?”하며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차람이는 열이 나고 아팠던 날 “엄마는 나보고 참으라고 하고 벚꽃은 내가 기침하는데도 신경도 안 써주고!”하며 마음에 담았던 말을 내뱉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모두다 관심을 가져주길 원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존재인데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미안하다. 나도 새로운 방구성으로 낫설고 정신이 없지만 아이들은 나 이상으로 혼란한 지금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 좀 더 넓게 주변을 바라보아야겠다.  아무튼 변화의 2월이다.

1. 청결

어느날 상화어머니께서 상화가 영딩이가 간질거린다고 (상화 왓: 병원에서 혈엿데~) 이야기했다하여 구충제를 먹일 때가 되었다고 판단. 며칠 후 모두 딸기맛 구충제를 먹었다. 그와 더불어 이뉘기는 밥먹고 나서 도와주고 있다. “아에이오우~”를 하며 양치질을 해주면 승우와 루다, 차람이는 매워서 얼굴을 찡그리다가도 “이빨균도 지금 맵겠지?”하며 참아보는 모습이 귀엽다. 영현, 서연이도 조그마한 입을 어찌나 앙증맞게 벌리는지..

2. 식사

문경, 하람이 준서와 차람이가 가까운 곳에 앉아서 먹을 때에는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밥을 잘 먹지 않을 때가 많다.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으나 그게 몸놀이로 이어지면 밥상이 들썩, 그릇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다. 또 영현, 서연, 승우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루다는 벚꽃은 어디 앉을까야? 하며 밥먹기 전 항상 와서 묻는다. 반찬을 더는 것이 5세들은 익숙하지 않아 도와주고 있다.

비둘기방 돌아보기
황태순(씩씩한 벚꽃)

♣ 방구성원

- 7세: 박소영, 송준서, 이하람, 장문경
- 6세: 신차람, 안승우, 이루다
- 5세: 권태오, 김영현, 홍서연

1. 생활

1층에 동지를 튼 비둘기방. 새로운 마음으

3. 관계 및 아이들 이야기

태오가 18일부터 등원을 시작하여 터전생활을 적응하고 있다. 수요일 나들이를 갔다가 오후부터 기침을 시작해서 목, 금요일은 나오지 못했다. 첫날, 둘째 날은 혼자 놀고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다가 셋째 날에는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하는데 같이 뛰어놀고 달리고 하였다. 그 다음 주부터는 할머니와 등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낮잠도 지난주에는 몸이 아파 자보지 못했으니까...그런데 월요일부터 낮잠도 잘 자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고 하며 친구들과도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거기다 건우가 모두 “야!”하는데 유일하게 “형!”이라고 하며 어찌나 애뜻하게 따르는지^^

소영이는 25일부터 등원을 하였다. 엄마와 처음에는 계속 있다가 정월대보름 소원지를 적은 후 바깥놀이를 할 때부터는 엄마도 찾지 않더니 첫날부터 낮잠을 자고 오후 간식까지 먹고 하원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나선다.

승우는 여전히 하선이, 상화와 나무 블럭을 만들고 종이를 돌돌 접어 칼을 만들고 “챙챙”하며 칼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일층에서 지내고 있으니 옷을 입는 것, 양치질 하는 것, 이야기 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니 승우도 “알겠어” 하며 수궁을 한다.

영현이는 유채가 문 앞에 오면 버선발로 달려 나가 반긴다. 그리고 돌이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깔깔 거리고 호호하고...낮잠도 방을 옮겨서 함께 자기도 한다.

서연이는 2월달은 감기로 컨디션이 좋지 않다. 영현이 옆에도 눕기 싫어, 안 놀아, 입에 머금고 있는 밥을 꼭꼭 씹어 먹자고 하면 그 말이 그렇게나 서러운지 영영 울기도 한다. 지오랑 구석에 몰래 돌이 가서 엄마 아빠놀이도 하고 조금씩 말도 많아지는 것을 보니 기침은 아직 하지만 조금씩 노는 컨디션은 회복 되고 있는 것 같다.

준서는 다 쓴 목공품통으로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달걀 빈 통으로 기차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며 동생들과 함께 많은 것을 집중해서 만들고 있다. 지구(해군수아엄마)네 학교 학생 두 명이 (복숭아, 딸기)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터전에 이틀 왔었는데 준서는 양손에 누나 모두 잡고 놀며 루다아빠님이 말씀하신 친화력의 끝판을 보여주었다. 준서는 정말 큰 형, 누나들을 좋아한다.

문경이는 아라방에서는 밥도 몇 그릇씩 덜어먹고 반찬도 수북이 덜어 먹었는데 방이 바뀌고는 한 그릇을 겨우 비울 뿐 아니라 밥 먹는 시간도 길다. 이유인즉슨 하람이와 준서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고 들어주고 추임새를 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또 방은 그대로인데 구성원이 바뀌어서인지 일곱 살이 되어서 너무나 기쁜 것인지 잠을 거의 자지 않는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피곤해서 기어다닌다고 하니 올해도 같은 방이어서 잘 적응하겠지 생각했던 것이 기우였다.

차람이는 초에는 몸이 아파 조용하게 있거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많았다. 결말이 슬픈 동화를 듣고는 눈물이 글썽글썽하기도 했다. 요즘 슬슬 몸이 회복되는지 말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낮잠도 일찍 자고 일어나기도 힘들어한다.

루다는 작년 하반기부터 간식 먹을 때도, 나들이 갈 때도 승주와 서영이와 벚꽃의 반지깁 손을 누가 잡을 것인지 열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방이 바뀐 지금 좀 덜해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누구 옆에 앉을까야? 어디 앉을까야?”하며 물어보곤 한다.

그리고 해바라기 형님들이 하는 사방치기 4,5단에서 뛰어 7,8단을 뒤집어 착지하기의 신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람이는 지오엄마와 채희엄마의 별명을 정할 때 좀 놀랐는데 가스렌지(가스 같이 생겨서)/공사길(그냥) 등을 별명으로 부르고 싶다

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심 먹을 때 이야기 나누며 사실로 시작하다가 허경영과 같은 이야기로 이어질 때가 있어 또 놀라기도 하고....참 허허^^;;하고 웃음이 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난다. 말하는 것은 예전의 장민이 같다고나 할까? (장민:천을산을 내가 만들었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어느 날은 문경이랑 낮잠 자고 일어나 미션이 어찌구 저찌구 하더니 씨익 웃으며 뺨에 뽀뽀하고 도망간다. 벚꽃한테 뽀뽀하기가 미션이었다나?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문경이도 같이 행동하게 한다.

***아이들 말 말말**

#1. 매호공원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서 유채와 영현이에게 나이를 물어보신다.

-유채: 나는 여섯 살이고 영현이는 다섯 살이에요.
 -할머니: 하이고 똑똑하네, 성은 뭐꼬?
 -유채: (뭔 말인지 모르는 표정)아?
 -할머니: 니 성 모르나? 아이꼬 클났네.. 나이는 알고 성은 모르네..
 -영현: (자신만만하게 팔을 크게 휘저으며)성은 이~만해요.

#2. 나들이 돌아오는 길

-좌 루다, 우 서영 고드름 노래를 부르다가
 -루다: 손시려~발시려~ 감기드신랑~
 -벚꽃!! 벚꽃 신랑은 남자지?

#3. 놀이터에서 쉬하다가

-승우: 쉬에서 왜 연기가 나?
 -벚꽃: 글썸...왜 그럴까?
 -승우: 뜨거운 거 먹어서 그런가?
 -근데, 나 뜨거운 거 안 먹었는데?
 -연기도 안 먹었는데?
 -내 고추에서 불난 적도 없는데? 이상하네.

II. 활동

1. 새노래-설날, 떡국 한그릇, 윷놀이

아침열기 중에 응원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나중에는 어수선하고 길어질 때가 있었다. 노래가 익숙하고 경쾌하여 문경이는 여전히 중간에 나와서 춤을 덩실덩실 출 때가 있다. 해바라기 졸업식에 맞추어 함께 부르기로 한 ‘꿈꾸지 않으면’과 ‘코난’을 함께 불렀다. 전래동요도 아이들이 익숙해지도록 자주 불러야겠다.

2. 대동놀이, 전래놀이

신규등원한 아이들도 익숙해지도록 ‘똥어라’를 주로 했다. 손치기발치기, 청어엮기 등을 해본 아이들은 해보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간단한 것부터 점차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1층에도 사방치기를 붙여놓았는데 루다가 때를 가리지 않고 자주 하고 있다. 손뼉치기 ‘뽕먹고~’는 서영이, 루다가 자주하자고 와서는 벌칙으로 어느 손가락을 짚는지 맞추기하는 것을 재미있어한다.

3. 세시와 절기

(1) 입춘(立春)-4일

24절기 가운데 첫번째 절기. 태양의 황경이 315° 인 때로서 양력 2월 4일 무렵이다. 음력으로서는 정월에 들기도 하고, 선달, 혹은 정월과 선달에 거듭 들기도 한다.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로 봄이 시작되는 때이다. 여러 가지 민속행사가 행해지는데, 대표적인 것은 좋은 뜻의 글귀를 써 대문·기둥·대들보 등에 붙이는 일이다. 이것을 입춘점이라 하며, 입춘축(立春祝) 또는 춘축(春祝)이라고도 한다.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손수 쓰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부탁해서 써 붙인다.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하다.

입춘 전날을 사계절의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해넘이라고 불렀다. 콩을 방이나 문에 뿌려 귀신을 쫓아내고 새해를 맞이하였다. 다음 절기

까지의 15일을 5일씩 셋으로 나눠서 첫 번째 5일에는 동풍이 불어서 언 땅을 녹이고, 두 번째 5일에는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세번째 5일에는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닌다. 고 하였다.

널리 쓰이는 입춘축문으로는 입춘대길(立春大吉),국태민안(國泰民安),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 자손만세영(子孫萬世榮)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궁중에서는 설날에 내전 기둥과 난간에다 문신들이 지은 연상시 가운데 좋은 것을 뽑아 써 붙였는데, 이를 춘점자(春帖子)라고 불렀다. 제주도에서는 입춘굿을 한다. 또한 농사의 풍흉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리뿌리를 뽑아 점을 쳐 보기도 한다.

아침 열기 시간 아이들과 입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 아침이 준비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정성껏 한해를 시작하는 축문을 써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승우는 아침과 손을 붙잡고 한글로 입춘대길을 써보기도 하였다. 모두 어찌나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그리는지...^^ 터전에서는 서로 자기 것 안 붙였다고 속상해 할까봐 못 붙였지만 집에 가지고 가서 붙여도 좋을 듯하다.



(2)설-11일

음력 설을 맞아 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절을 해보았다.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빚기 이야기를 듣고 만두도 함께 만들어 오후 간식으로 먹었다.



(3) 우수(雨水)-18일

24절기의 하나. 음력 정월 중에 있는 절기로 입춘과 경칩 사이에 있다. 우수는 눈이 비로 내리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뜻이므로, 봄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트는 때를 말한다.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의 황경(黃經)이 330° 가 될 때로, 양력 2월 19일경이다. 옛날 중국사람들은 우수입기일(雨水入氣日) 이후 15일 동안을 5일씩 나누어 삼후(三候)로 하였는데, 마지막 5일인 말후(末候)에는 봄빛이 완연해진다.

4. 담금초 만들기

작년 노을과 뜨개질을 하며 밀납초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방법을 알고 스스로 만드는 모습을 보고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1월부터 하려고 맘을 먹고 있다가 여러 일정으로 미뤄졌었는데 아직 날이 쌀쌀하니 밖에 나가는 아이들도 많지 않았고 빨리 초도 마를 수 있겠기에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다.

중탕을 하며 밀납이 녹는 모습을 보며 “바나나 같다” “치즈 같다” “냄새가 좋아/이상해” 등의 다양한 반응과 함께 심지를 하나씩 들고 초가 녹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다 녹으면 부를테니 놀다오라고 해도 끝까지 곁에 있었던 윤서, 윤아는 고구마같은 담금초를 완성하고 마무리를 하였다.

졸업선물로 대나무배 초를 아이들과 준비했다. 정성껏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는 스티커도 몇 개씩 붙이고...그렇게 선물로 해바라기 언니, 오빠 줄 것이라고 해도 모? 양의 바구니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III. 모듬/이야기

아이들이 터전에서 솜사탕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해바라기와의 교류가 많은 씩아이들이라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말들을 자연스레 배운다. 유행처럼 아이들 사이에 번지기 시작하고 선생님들과의 이야기 중 아이들 사이에서 몸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오고가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초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솜사탕 노래를 다시 불러보고, 점심시간에 바지와 팬티를 장난친다고 내리는 친구들을 봤을 때의 느낌(싫었어/ 깜짝놀랐어 등)을 들어보았다.

그리고 '나는 여자. 내 동생은 남자' 이야기를 보며 남자와 여자의 신체부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덜해진 듯하지만 그 후로도 낮잠 시간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VI. 나들이

아직 등원을 전체가 다하지 않아 나들이를 갈 때 다함께 갈 때가 많다. 차가 수시로 나오는 골목이나 차가 다니는 길을 갈 때 한 줄로 벽 쪽에 붙어서 간다던지, 교사가 가장 앞장서서 가는 이유 등 나들이 규칙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며 함께 몸으로 익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땅이 많이 질척하여 가까운 산에 갔다 와도 신발이며 옷이 진흙투성이가 된다. 그래서 가까운 매호공원이나 고산 초등학교, 중학교로 나들이를 많이 가고 있다. 고산 초등학교에서는 해바라기 형님들도 만나 같이 놀기도 하였고 고산중학교는 축구공을 가지고 가서 축구를 하거나 잡기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숨바꼭질 등을 하며 넓은 공간을 마음껏 뛰어다녔다.


V. 3월 달은 이렇게 지낼거예요.

사람에게는 고귀한 영혼이 있다.
 지략처럼 누구에게나 덮겨 있다.
 당신은 고귀한 존재라고
 노래할 때 아이들은 정말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그런 이로 자라나려고 방향을 튼다
 마치 햇님을 따라 피어나는 꽃처럼 꽃들이
 해의 모양을 닮은 것은 그 때문이 아닐까

그 말을 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고귀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라고,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느껴보고, 지금 이 순간 그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무엇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의 고귀함이 잘 드러나는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러다보니 내 노래들은 어쩐지 세상 때가 묻지 않은 듯이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굳이 아이들의 노래에 세상 때를 묻혀야 할 까닭이 있을까?
 어차피 세상을 살자면 묻게 되는 그 징한 때를 말이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진 천국의 노래를 원한 것도 아니다
 일상 속에 곱게 깃든 인간다움. 내가 노래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었다.
 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이 고와져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힘이
 생겨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 '곱기도 해라' 머리말 중에서 -

1. 노래부르기를 더 자주 할 거예요.
2. 습식수채화
3. 담금초-날이 추워 아직은 초가 빨리 마를 것 같고 생일 초도 만들어 볼까해요.
4. 만다라-자연으로 꾸미는 만다라와 달력 

딱따구리방 돌아보기

정현주(씩씩한 아침)

♣ 방구성원

7세: 김윤아, 김지호, 우현준, 이윤서

6세: 박채희, 오은준, 조승주

5세: 강유채, 김지오, 박재형

2월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달. 아이들은 한 살 더 먹은 설렘을 안고 방이동을 했다. 따뜻한 봄이 시작 된다는 절기 ‘입춘’은 봄이 오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새해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라고 ‘입춘대길’, ‘건양대경’ 입춘 축을 써서 현관에 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첫 번째 절기를 맞으며 딱따구리방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대동 강물도 녹는다는 2번째 절기 ‘우수’에는 ‘사당지’도 얼음이 다 녹았고, 꽃는 맏힌 매화 봉오리를 물에 담가(하도 만져 꽃송이는 몇 개 남지는 않았으나) 방안에서 매화를 보았다.

설날에는 ‘큰 손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이 이야기를 듣고 만두를 빚었고 정월 대보름에는 소원지를 써서 작은 달집태우기와 먹거리 교육삼아 부럼으로 강정을 너럭히 만들어 나들이 가서도 먹었다.

아이들에게 반가운 손님. 지구(해군수아모)가 근무하는 노변 중학교 학생 혜지와 수연이가 놀러와 아이들이 복숭아와 딸기로 별명을 지어 주었다. 딸이 썩썩한 아이들이 너무 좋다 하니 아버지도 궁금하셨는지 딸기, 복숭아와 함께 낮잠시간에 잠시 아이들을 보고 가셨고, 대견하게도 용돈으로 행운목을 사서 썩썩이들에게 선물로 주고 마지막 주에 한 차례 더 다녀갔다.

나들이

2월에는 주로 전체 나들이를 다녀왔고 새로 등원하는 친구들의 체력을 배려하여 나들이 장소는 터전에서 가까운 곳으로 증심사 사당, 매호 공원, 왕놀이터, 은탑놀이터, 고산초등학교 나들이를 다녀왔고 평소엔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란 말을 심심찮게 듣던 고산 중학교 운동장을 방학동안 썩썩이들이 접수했다.

박새방(4) 동생들과 함께 잡기 놀이도 하고 숨바꼭질, 물고기 놀이(축구골대 그물 잡고 파닥거리다가 탈출하는 아이들이 만든 놀이), 사방치기, 긴 줄넘기 등 다양한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

넓은 터전 벽화 앞에서 다진 실력으로 흠바닥에 긴 막대로 달팽이집도 크~게 그려 넓은 길로 뛰어 다니며 달팽이 게임도 할 수 있었는데 팀 나누기만 도와주면 아이들끼리 곧잘 놀이를 이어 간다.

현준, 윤아, 윤서, 승주, 채희가 증심사 사당에서부터 재미를 붙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터전 친구들 모두가 좋아하는 놀이로 모두가 함께 학교가 들썩이도록 깔깔대며 뛰어다니고 놀았다.

방학은 학생들도, 썩썩이들도 즐거우니 운동장에서 자주 놀 수 있게 학교는 방학을 지금보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공동육아의 꽃 나들이.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 되지 않으면 나들이가 어려워짐에 대해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고 교사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놀이의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자유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의도적인 단호함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건널목과 차도에서의 안전, 보도가 없고 차가 다니는 길에서는 길 가쪽으로 가기, 선생님보다 앞서 가지 않기 등 나들이 규칙에 대해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과 매일 공유 중이다. 특히 교사보다 앞서가는 경우에는 친구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오는 교사와 함께 오도록 하고 있다.

식사

점심시간은 노느라 나누지 못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여유롭고 밀도 있게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 반찬을 슬쩍 나눠 주며 마음을 나누고 정을 쌓는 시간이기도 하다. 주방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동안 7세들이 상을 준비하고 밥과 반찬은 아이들이 직접 먹고 싶은 만큼 덜어가고 있는데, 가끔 도움을 요청하는 지오, 승주, 유채의 식사 준비는 7세들이나 아침이 도와주고 있다.

현준이는 처음 먹어보거나 맛이 없을 것 같은 음식은 안 먹으려 하다가도 막상 맛을 보면 맛있다고 그릇을 다 비우고 딱따구리 방에서 식사 속도가 제일 빠르다. 재형이는 반찬을 가리지 않고 반 정도는 혼자서 먹고 나머지는 도와주면 다 먹는다.

올해 딱따구리들은 대체적으로 식사 속도가 늦은 편이라 박새방(4세)보다 늦게 식사를 마치기는 하지만 크게 편식하지 않고 먹을 양만큼은 다 먹는다.

이담기는 모두 도와주고 있고 특별히 혼자서 양치질 하고 싶은 날은 양치 후 입안을 살펴 봐 주고 있다.

낮잠

딱따구리 방의 낮잠 시간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안자겠다고 하더니 이야기를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 버리는 현준이와 올해는 결단코 낮잠을 자지 않겠다고 비장한 결심을 몸소 실천하는 윤서, 자지 않아도 자는 듯 조용히 몸쉬기하는 윤아, 잠을 깨고도 일어나기 싫어서 지호는 매일 아침과 이불 씨름을 하고 있다.

이젠 아침에게도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워진 지오는 사흘은 자고 이틀은 안자며, 승주는 생생하게 깨어 있다가 동화가 끝나면 신기하게도 바로 꿀아떨어진다.

채희와 지호는 동생 서희와 도은이가 등원한 이후 박새방으로 건너가 낮잠을 자는지라 언제쯤 딱따구리방에 자리 오려나. 했더니 4

주째가 되어서야 건너 왔고, 승주는 비둘기 방에 한 차례, 은준이는 도은이와 함께 자고 있어서 2차례 박새 방에서 건너갔다. 독수리방 서영이도 딱따구리 방에 자리 오고, 비둘기방 영현이도 유채와 함께 자리 오며 아이들이 방 구분없이 먹고 자고 놀고 있다. 1,2층을 오르내리고, 온 터전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며 영현이와 엄마 놀이를 하던 유채는 자람을 하느라 배도 속 들어가고 말수도 줄고 얼굴이 반쪽이라 안쓰럽다.

놀이

실내에서는 꾸준히 찰흙놀이, 색종이 접기, 블록 놀이가 이어지고 있고, 날이 풀리면서 모래밭과 이어지는 1층 북쪽 창을 열어두고 교사가 2명이 함께 지낼 정도로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새 모이주고 물 갈아주기, 모래놀이, 줄넘기를 하며 본격적인 바깥놀이를 위한 시동을 슬슬 걸고 있다.

새모이 주기

새모이 주기는 2011년 겨울부터 시작되었는데 혼자서 먹이와 물그릇을 챙길 때보다 아이들과 아마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 먹이가 많아지니 새들이 더 많이 놀러 온다.

작년에는 곡식을 먹이로 주었더니 참새와 박새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과일 먹이가 많으니 어치(산 까치)와 작박구리가 사과와 굴을 먹고, 산비둘기는 바닥에 뿌려진 곡식을 먹는다.

어치 두 마리가 와서는 과일이 많이 있는데도 자리싸움하듯 다투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도 겁내지 않고 먹이를 먹기도 한다. ‘저 새들(어치,작박구리) 말고 다른 새들도 놀러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작은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서영이는 과일과 수수를 함께 가져와 새들에게 주고 있다.

현동이가 겨울동안 자주 물그릇의 얼음을 더운 물로 녹이고 물주기를 했었는데 해바라기로 건너가고 나니 지금은 어깨 너머로 지켜

보던 문경이와 서영이가 물을 챙겨주고 있다. 새들이 아이들의 손에 먹이를 먹으러 오는 날을 기다리며 씹씹이들의 새 먹이주기는 계속된다. (시든 과일과 버려질 곡식을 터전으로~~~)

왕놀이

2층에서는 블록놀이나 소꿉놀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승주와 지호가 한복을 가져와 하루도 여러 차례 갈아입기를 반복하면서 왕(이윤서), 왕비(김지호), 3공주(박채희, 조승주, 박소영)의 왕놀이가 시작이 되었다. 이 놀이는 왕만 말을 부지런히 하고 왕비와 공주들은 별다른 대화를 얹는데도 놀이가 1시간가량 이어지는 점이 흥미로운데 아마도 여심을 사로잡는 한복이 한 몫을 한 것 같다

▶ 왕(윤서): 너희들은 1층에 가서 금을 가져 오나라~.(왕비와 공주들을 바라보며)금은 긴 나무 블록이데이(금괴를 알고 있는가 보다^^)

▶ 왕비,공주(소영, 채희, 승주) : 예~~. 왕님~~.(부산스럽고 부지런히 금을 날라 왕에게 갖다 바친다.)

▶ 왕: (흐뭇하게 웃으며 흥분된 높은 목소리로 책상에 나무블록을 쌓으며)그래~~ㅎㅎㅎ, 점점 더 많이 가져 오나라~. 금은 많으면 좋다~~ㅎㅎㅎ. 보물 창고를 가득 채우자~.

▶ 한복을 소영 공주에게 입히고 평상복을 입고 몸소 검소함을 실천하는 훌륭한 왕비 지호는 미소를 머금고 말없이 영영이로 금괴를 가리고 앉아 국을 지키고 있다.

▶ 아침: 폐하 금을 무엇에 쓰시려고 그리 많이 쌓아 두시는지요?

▶ 왕(윤서): (흐뭇하게 웃으며)아~ 그래~. 금이 많으면 부자가 된다~.

▶ 아침: 금이 많으면 왜 부자가 되옵니까?

▶ 왕(윤서): 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그러니까 부자 되지~.

▶ 아침: 논과 밭은 사서 무엇을 하시려는지요?

▶ 왕(윤서): 쌀도 심고, 수수도 심고, 채소도 심고 그러지. 그래야 밥도 해먹지~.

▶ (나무블럭 3개를 들고 일어서며)왕이 공주들에게

선물을 줘야겠다~.

▶ 왕비와 공주들의 처소(창가에 준비해 둔 이부자리에) 가더니

▶ 왕(윤서): (베게 밑에 블록을 하나씩 넣어주며)금은 선물로도 그만이구나~. (연신 미소 띤 얼굴로 공주들을 쳐다보며)방에 가봐라~ 내가 선물을 넣어 두었다. 금이다~~.

▶ 공주들(소영, 채희, 승주): (배시시 웃으며)에~~왕님~~(요즈음 금값을 모르는 듯 생똥맛다는 표정으로^^)이게 무슨 선물이고? 금으로 뭐하노?

▶ 공주들은 왕의 선물보다는 한복입고 사방사방 살랄라~ 살랑 살랑 돌아다니는 자체가 즐거워 왕의 어떠한 제안을 해도 너그럽기만 하다.

▶ 왕(윤서): (종이 블록을 장에 넣으며)이것은 돈 뭉치다~. 보물 창고에 차곡차곡 넣어 놔야 부자 된다~.(공주들에게) 너희들도 넣어라~. 노란 색은 더 비싼 돈이다~.

여태껏 윤서가 자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정리하는 것을 본적이 없는데 정리정돈이 아니라 놀이이기에 가능한 일 인듯.^^

잠시 놀고 있는 다른 친구들을 살피고 돌아오니, 어찌어찌하다 갑자기 왕비가 승하하시고 네모책상과 이불을 이용하여 왕비의 릉을 정성껏 마련하고 세 공주가 왕비의 릉에 절을 하는데 자상한 왕께서 공주들을 친히 훈육하신다.

▶ 왕(윤서): 그렇게 절하면 안 된다~. (몸소 큰 절을 해보이며)여자들은 오른 손을 위에 얹고 절을 해야 한다~~.

▶ 공주(소영, 채희, 승주): (다소곳이)에~~왕님~~.

왕비(지호)는 꽃이불 씌어진 책상 밑 무덤속에서 10여분을 내다보지도 않고 누워 있는데 말수 적고 무뎠하니 그 옛날 왕비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고 그 중 인내력은 가히 국모가 되고도 남을 만하다.^^

▶ 왕(윤서): 왕도 무덤을 만들제이~~.

어찌어찌하여 곱살맞던 왕은 공주들에게 지금보다 더한 기쁨을 주기위해 자청하여 승하하시고 책방에 네모책상과 꽃이불로 왕릉을 만들어 세 공주는 부지런히 절을 하고 한복자락 살랑거리며 돌아다니며 놀이는 이어졌다.

많은 불룩을 치우려면 왕과는 실랑이를 꽤나 하리라는 아침의 예상을 뒤엎고 아마들이 마실가자며 아이들 데리러 오시니 왕과 왕비가 부스스 무덤에서 나와서 손수 공주들을 달래가며 이부자리도 정리하고 금과 돈뭉치도 정리를 했는데 이 날 정리 정돈은 마실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아이들의 놀이를 볼 때마다 느낀다. 혼자 보기엔 정말 아깝다.)

정월 대보름 소원지 쓰기와 달집태우기


정월 대보름이 일요일이라 달집태우기를 터전에서 했다. 아이들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을 갖고 싶다’는 이야기가 대다수라 달님은 산타 할아버지처럼 선물을 갖다 주기는 어려우니 내가 되고 싶은 것이나 마음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바람을 이야기 해보자고 하였다. 모두가 깊은 고민 끝에 한 마디 씩 남겼다.

- ★ 강유채: 감기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 ★ 김윤아: 선녀가 되고 싶어요.
- ★ 김지호: 아토피 낫게 해 주세요.
- ★ 박채희,오은준: 도술을 쓰고 싶어요.
- ★ 이윤서: 나는 죽지 않고 살고 싶어요.
- ★ 조승주: 공주가 되고 싶어요.
- ★ 우현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 저는 바람이 없어요’
- ★ 김지오: (혀를 내밀고 웃으며) ‘안 해~’, ‘싫어’

달집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씩씩한 숲길과 터전 주변에서 나무 가지를 부지런히 모았는데 연기가 나면 불난 줄 알고 소방차가 출동할까봐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지끈에 달아 현관 입구에 걸어 놓았던 소원지를 정성스레 빙빙 감아서 호로록~ 살짝이 태웠다. 불을

붙이며 마지막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모아 소원을 다시 한번 빌자고 하니 진지한 눈으로 미간에 힘을 주고 코를 벌름이며 지켜보는 아이들의 모습은 진지한데 나는 너무 재미나기만 하다.

딱따구리방에 마지막으로 등원한 재형이와 바람이 없을 만큼 마음이 가득찬 현준이의 안녕과 지오의 마음속의 바람이 달님에게 전해졌으리라 믿으며 아침은 올 한 해 터전과 각 가정의 무탈, 건강을 바라며 더불어 부디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한다.^^

3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으며 어김없이 찾아오는 꽃샘추위를 건강하게 이기고 3월에도 즐겁고 활기차게 지내보고자 한다. 경칩에는 은행을 볶아먹고, 춘분에는 감자 심기, 2월보다 조금 더 먼 장소로 나들이도 가보고, 봄의 기운을 느끼는 활동으로 이어가기 등 아이들의 흐름을 토대로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하려 한다. 

독수리방 돌아보기

김지영(씩씩한 피터팬)

기본생활교육 - 종이를 아껴 쓰자!

터전에서 아이들과 약속하기를 그림을 그리거나 딱지를 접을 때는 자기 스케치북을 쓰기로 했다. 초기에는 잘 지켜지는 듯 했으나 어느 순간 또 다시 이면지가 나오고 이면지를 달라하며 아이들이 찾아서 갖다 쓰기도 하는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스케치북을 다 썼는데 교체 해주지 못한 상황, 자기 스케치북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상황, 스케치북으로 접기를 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아이들의 말 등 교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앞으로는 스케치북과 종합장을 먼저 잘 챙겨주고, 바구니에 보관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색종이 또한 접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르고 버리고 색종이함이 넘쳐나 관리가 되지 않았다. 접고 난 다음 개인 파일에 보관하자고 이야기 했지만 아이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으면 놓고 돌아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여자 아이들은 분홍색만 고집하며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끊임없이 이야기 해주고 습관을 갖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등원

2월은 방학과 기존 7세들이 해바라기로 넘어가면서 등원하는 아이들이 부쩍 줄고 등원 시간도 늦어졌다. 서영이가 가장 일찍 터전에 온다. 예전 아침 맞이할때는 헤어지기 힘들어 울기도 했는데 이제는 씩씩하게 뛰어 들어오기도 하고 10번 중 1~2번 정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 헤어지기 힘들어한다. 항상 챙겨오는 간식도 친구들과 나눠먹고, 먼저 나눠주는 서영이다. 1층에 사방차기가 그려져 있어 오전에는 주로 사방차기가 이루어졌고 하선이의 경우 나무 블록으로 만들기를 하거나 한편에서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며 보냈다. 끊임없이 난자를 만들고 그리고 색칠하며 부쩍 그리는데 흥미를 보이고 집중 시간도 길었다.

오전간식

오전간식은 10명 내외였다. 아침을 먹고 왔던 영운이는 항상 많이 잘 먹었으며, 간식이거나 아침을 조금이라도 먹은 서영이나 하선이도 양이 많아 털어주고 맛이라도 보자고 권했다.

아침열기

소현이는 나비 옆에서, 서영이는 벚꽃 옆에 앉아 모듬을 시작한다. 모듬을 하고 있으면 수하와 상화가 들어온다. 규언이와 영운이는 속닥속닥 옆 친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뒤로 물러나 있거나 모듬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 모듬 시간에 자주 이름이 불린다.

7세 형님임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기존 습관들이 있어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나들이

나들이 장소는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다수의 의견에 따랐다. 2월 한달은 전체 나들이를 제외하고는 주로 놀이터에 갔다. 왕 놀이터, 은탑, 월드메르디앙 놀이터.

길을 모르는 다람쥐를 위해 영운이와 규언이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다.

7세 중 홍일점인 도연이도 혼자 놀거나 때론 규언이와 같이 노는 모습을 보였고 규언이와 영운이는 함께, 상화와 하선이가 함께, 서영이와 수하, 소현이는 혼자서 또 같이 놀이했다.

소현이는 끊임없이 뛰어다니고 손잡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장애물 넘기 등 혼자서 더 신나는 모습을 보였다.

점심시간

영운이가 잘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잘 먹는지 깜짝 놀랐다. 다른 친구들이 다 배식을 하기도 전에 다 먹고 더 먹으려고 일어서는 경우가 많았다. 잘 먹지만 빨리 먹고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더 먹게 되니 이러한 습관들이 반복이 되는 듯 했다. 조용한 활동보다는 몸으로 움직이는 놀이를 하고 활동량이 많다보니 당연히 많이 먹게된다.

상화와 하선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먹는데 관심이 없고 엉덩이를 들었다 붙였다 집중을 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주의를 주었지만 습관이 잡혀있지 않다.

하선이는 특히 김치를 좋아하며 여전히 두부를 싫어한다. 수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혼자서 먹고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반찬만 먹는다. 서영이는 혼자서 먹지만 속도는 느리고 어느 날은 잘 먹고 어느 날은 도움을 준다. 소현이는 혼자서도 잘 먹어 동생이지만 모범이 되고 있다.

낮잠

7세가 되면서 영윤이와 규언이가 낮잠을 자지 않으려 한다. 책을 들려주는 시간에도 온몸을 비틀며 몸부림을 친다. 결국엔 잠들면 제일 늦게 일어나는 두 형님이다.

하선이는 아토피가 약간 올라오면서 간지럽고 아프다고 하며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소현이와 수해도 토닥토닥 해주면 이내 잠이 들고 상화는 자다가 꼭 깨어나 화장실을 한번 간다. 서영이는 잘 자지만 아직까지 자면서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남아있다. 그래서 잠들면 살포시 빼 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2시 30분 정도가 되면 잠이 든다.



요리활동 돌아보기

서은숙(씩씩한 달사탕)

* 달사탕을 이야기하다

신입교사 소개를 부탁을 받고 뭘 적어야 할까? 아마들은 무얼 궁금해 할까?

이름은 서은숙이고, 터전에서 달사탕이고, 나이는 4학년5반으로 터전에서 나비선생님다

음이고, 혈액형은 B형이고, 음주는 조금가능하나 가무가 전혀 불가능한 소심하고 내성적 성격이고...

키는162이고, 몸무게는 보시는대로 밝힐 수 없고, 카톨릭신자이고, 특수학교교사로 있는 신랑과 고3 딸과 중2 아들을 두고 있다는 이런 사실은 한 개도 궁금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 해 봅니다.

어린시절 헬렌 켈러를 있게 한 애니 설리번 선생님을 동경했고 대학교에서는 학교생활보다 봉사활동 동아리생활을 더 즐기며 장애시설 봉사도 다니고, 소록도에 봉사도 다니고, 수화발표회도 하고 즐겁게 살았어요. 내성적인 제가 제일 열심히 살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결혼 후 내 유년시절 일 다니는 엄마의 부재가 싫어서 일하지 않겠다고 생각 했으나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일을 찾게되고 예전에 씩씩한에 있던 꼬꼬를 통하여 해바라기에서 공동육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지동에서 오래 살아서 고산초등학교 행사에서 자주 보아왔던 토토로와 아이들의 모습이었고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이들의 반말문화, 자유로운 생활, 그리고 너무 어수선한 주거환경, 아마들의 긴 회의문화, 아마들의 청소문화 등은 나에게 조금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이의 육아를 위하여 모든 생활을 터전생활에 맞추는 아마들의 모습에서 조금은 별나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했으나 하루하루의 시간이 흐르면서 봄에는 진달래화전을 구워 먹고, 아카시아튀김도 해먹고, 썩개떡도 만들어 먹고, 단오에는 동네를 돌며 사물놀이도 하고, 여름이면 계곡으로 물놀이도 가고, 텃밭에 배추벌레도 잡으며, 직접 키운 배추로 김장도 하며, 자연 속에서 뛰어 놀고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 자연과 함께 흘러가며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또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어른들의 의견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모습에서, 마실문화에서, 나의 아이만 잘 키우겠다고 욕심 부리지 않는 모습에서

공동육아의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하지만 해바라기 때보다 더 아이들을 접하게 되는 요즘 저에게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허용과 어느 정도의 제제가 필요할까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달사탕, 달사탕’ 부르며 주방으로 들어오는 아이들과 ‘힘드시죠’하며 미소를 건네주시는 아마들과 ‘선생님, 천천히 하세요’하며 챙겨주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흘러가다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 요리활동 돌아보기

2월 식단을 짜면서 제철음식을 고민하다가 매생이굴국을 생각했다. 나도 먹어보기는 했어도 직접 끓여 먹어 본 적이 없었으나 아이들에게 매생이국을 알려주고 싶어서 메뉴에 넣었다. 아이들은 먹어보지도 않고 머리카락 같이 생겨서 이상하다, 먹기 싫다고 하였다. 먹지 않으려는 아이들에게 매생이국은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며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하며 한 숟가락 먹어보게 하였더니 몇 명은 괜찮다고 하며 그릇을 비우기도 했다. 새롭고 먹기 힘들어 하는 음식을 억지로 다 먹게 하는 것보다 음식의 맛을 느껴보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겨울의 대표적 음식 팔죽도 먹이고 싶는데 팔죽은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단맛을 좀 가미하여 단팔죽을 메뉴로 하였다. 처음에는 먹지 않으려고 하던 아이들이 한 번 맛을 보고는 한 그릇 더 먹는 친구들도 있었다. 단 맛의 유혹이다. 팔죽이 메뉴로 적합할까?

단팔죽으로 조금 더 먹어보게 하는게 좋을 까?...

절기 음식으로 설을 앞두고 만두 만들기 하였다. 각 방별로 당면, 돼지고기, 두부, 김치, 부추, 만두피 재료들을 준비하여 보여주고 만두피에 속을 넣게 하였다. 제일 어린 박새방 친구들도 만두를 만드는데 만두피에 속을 넣어 자기들처럼 훌쭉한 만두를 만들어 놓았다. 만두맛은 만두 속맛이라는데 속이 비어 있는 만두들은 속을 더 채워서 간식시간에 찢만두로 먹었다. 담백하니 맛있어서 많이들 먹었다. 아이들의 손길이 닿은 음식은 더 맛이 좋은 것 같다.

오전 간식으로 콩나물 갱시기를 넣으면서 콩나물 반 봉지가 남는데 어떻게 하지...생각하다가 김치콩나물국을 만들었는데 오전 간식에 이어 점심 국에 같은 종류의 메뉴가 있어서 좀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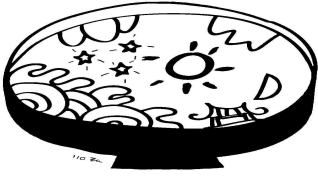
보름을 앞두고 오곡밥도 먹고, 강정 만들기 요리활동을 하였다. 그 주에 달사탕이 없어서 풀잎이랑 하였는데 만들면서 먹는 것 반, 만드는 것 반이었다고 한다. 만들면서 강정을 입으로 가져갔을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미소 짓게 된다.

2월 메뉴에 빨간 떡볶이가 있었는데 안 맵게 하려고 케찹을 섞었는데도 고추장의 매운맛 때문인지 어린 친구들이 먹기 힘들어 했다. 고추장 떡볶이는 씹직한에서 처음 먹는 메뉴라고 했다.

매달 나오는 식단의 메뉴가 비슷비슷한 듯해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작성을 하는데 요리를 하면서 왜 이렇게 메뉴를 정했지하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2월 메뉴에는 어묵의 첨가와 햄의 햇수가 많았어요.

더욱더 생각하고 고민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먹이겠습니다. 🍱

● 씹씹한 어린이집_3월 식단



씹씹한 맛있는 3월 식단

서은숙(씹씹한 달사탕)

	월	화	수	목	금
	4	5	6	7	8
오전간식	소고기야채죽	떡만두국	스크램블	단호박죽	수수부꾸미
점심	냉이된장국 메추리알조림 호박볶음	오징어국 두부강정 미나리무침	잡채덮밥 팽이버섯된장국	들깨미역국 돼지고기수육 쌈배추쌈장	육개장 봄동사과무침 계란찜
오후간식	감자수제비	김치주먹밥	찐고구마	박서희생일	감자채전
	11	12	13	14	15
오전간식	갯죽	고구마스프	찐만두	야채주먹밥	김치콩나물죽
점심	황태복어국 땅콩조림 양배추쌈장	근대된장국 삼치구이 호박새우젓볶음	차장밥 파계란국	감자국 깻잎조림 연근구이	순두부찌개 건새우볶음 냉이무침
오후간식	약밥	새알미역국	웨이감자	팔칼국수	해물부추전
	18	19	20	21	22
오전간식	새우야채죽	땅콩죽	꼬마김밥	양념연두부	유부초밥
점심	김치청국장 감자볶음 진미무침	고추장찌개 팽이버섯전 김구이	불고기덮밥 들깨무국	김치청국장 무나물 오징어볶음	홍합미역국 잔멸치파프리카볶음 콩나물무침
오후간식	김치스파게티	두부김치	계란토스트,우유	도토리묵채	절편 사과
	25	26	27	28	29
오전간식	누룽지탕	달걀팬구이	멸치주먹밥	시금치죽	오므라이스
점심	얼갈이배추국 김치도토리묵무침 고등어조림	비지찌개 시금치나물 오징어볶음	야채볶음밥 계란후라이 콩나물국	닭개장 무말랭이무침 감자달걀샐러드	순대국 툇초고추장무침 버섯볶음
오후간식	궁중떡볶이	조랭이떡국	고구마경단	떡꼬지	모닝빵샌드위치

* 식물관산지 - 쌀, 잡곡류, 쇠고기(한우), 돼지고기=국산/김치(직접담금)-배추, 고추가루=국산/ 생선=국내산

* 식품구매 및 터전사정에 따라 식단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2 씩씩한 상·하반기 교육평가

안전교육

- 나들이시 교통신호등을 보고 가는 부분, 조심해야 할 것들, 계단오르내리기, 생활 속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다. 안전교육 후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릴 때 뛰어 다니는 것은 여전히하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이 되어야 한다.
- 바깥놀이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신경써야 할 것 같다.→돌계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아이들과 공유하도록 한다.
- 화단쪽 경사진 면에 대해 →텃밭쪽 돌계단등 위험한 외부 주변 환경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시설소위에 요청하기로 함)

기본생활교육

-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서로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 기본생활교육 안에 예를 들면 소변을 볼 때 변기 사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생활 습관으로 형성 되기 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인 반복이 있는 후에야 습관으로 갖춰질 것 같다.
- 양치질, 옷개기, 용변 보기, 손씻기, 식사지도등 시간에 쫓기지 말고 챙겨야하고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다.
- 이면지 사용, 블록 사용에 대한 올바른 방법등 방모임에서 아마들과 공유하여서 집에서도 교육으로 이루어 졌으면 한다.
- 평소의 집중시간을 감안하여 아이들이 몰입 할 수 있도록 교재 교구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 이면지아껴쓰기-종이의 소중함에 대하여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 화장실에서 손씻기 지도하기- 방담임 교사가 식사 준비와 아이들을 챙기는 시간이라 대표 교사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 교사들은 방구분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함께 지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먹거리교육

- 일상생활을 하면서 터전에서 일어나는 세시절기를 토대로 그 의미들을 미리 공유를 하고 나누었으므로 충분히 교육적의의를 챙겨보았다고 본다.
- 먹거리 교육과 요리활동이 겹쳐지는 감이 있었는데 분리하기에는 일정의 바쁜감이 있었다. 요리활동과 먹거리 교육은 따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시간적인 확보의 고민도 필요하다.
- 생협에서 주최하는 먹거리 교육과 실생활에서 필요하다고 고민되는 주제를 정해서 아이들과 나누었다. 터전에서 하고 있는 안전한 식품교육이 가정에서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방모임에서도 지속적인 공유과정이 필요하다. 아이-아마-교사가 모두 교육을 통해 일깨운 부분들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해야겠다. 먹으면 안좋고 안된다는 내용보다 먹어서 더 좋은 것들에 대한 먹거리교육이 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평가에 공감이 된다.
- 행사가 겹치더라도 먹거리교육과 요리활동을 구분해서 세시절기에 맞추어 진행이 되면 좋겠다.

소방교육

- 상반기에 대피훈련을 할 때보다 허리를 숙이고 재빠르게 대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탈출할 때 본인이 2층 미끄럼틀로 대피할지, 1층 계단으로 대피할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경험으로 체득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이 소방 교육 후 평상위에서 인원을 점검하며 서로를 챙기는 것도 비상 미끄럼을 타는 것도 쏠쏠한 재미로 느끼는 것 같다. 이웃과의 교류 측면에서 소방교육부분에 대해 이웃이 느껴지는 불편함에 대해 고민해보자...소방교육으로 인해 실제 화재가 난 것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있어 미리 공유가 필요하다. 단오 때만 일시적으로 떡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이웃과의 교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해야 문화인 듯 하다.
- 행사가 있을 때에도 미리 안내문을 붙이는 형태의 공유가 필요할 것 같다.
- 소방교육 매뉴얼을 다시 한번 챙겨 보면 좋을 것 같다.(미끄럼 이용시 안전, 속도조절, 위아래 교사의 사인, 매뉴얼 다시 확인하기)
- 미끄럼틀의 경사-교사회 뿐 아니라 이사회도 같이 나누자. 미끄럼틀에 대한 고민////
- 아이들의 선택상황이라기보다 교사들의 지시에 따른다. 맡은 구역에 따른 교사들의 영역을 다시 나누고 방마다 배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생일

- 매년 한 번씩은 교사회도, 아마들도 생일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
- 교사나 아마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생일의 방식이 똑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당사자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일 년에 한 번 뿐인 자신의 생일이므로 생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 한주에 여러 명이 생일인 경우에는 한 주 전체흐름이 생일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생일카드 만드는 시간확보를 위해 나들이가 제한되거나 다른 활동을 이어가는데 어려운 감이 있어 생일이 집중되는 달에는 활동하는데 매년 생일카드만 만들고 지나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
- 카드 만들기를 미술활동과 나들이와 연계하여 나들이에서 가져온 자연물로 꾸미기를 하는 등 한 장씩 개별적으로 준비하던 생일카드를 지금은 한 방에서 함께 준비한 대형 카드를 만드는 등 카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 생일턱은 떡과 제철 과일로 준비하고, 생일턱을 개별 가구에서 준비하니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 교사들의 생일도 함께 챙기면 좋겠다.
- 교사의 생일챙기기
 - 벚꽃 : 5월 15일
 - 체리 : 4월 29일
 - 아침 : 6월 16일
 - 달사탕 : 4월 21일
 - 나비 : 7월 19일
 - 다람쥐 : 4월 28일

요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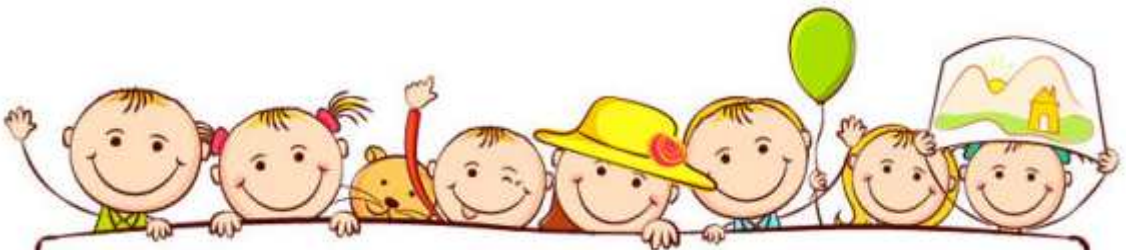
- 월 2,3회 하던 요리활동이 긴 나들이와 일정에 맞추다 보니 월 1회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나들이 못지않게 좋아하는 활동이다.
- 편식이 심한 아이들에게 여러 음식에 대한 적극적인 경험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준다.
- 그러므로 전체적인 요리활동은 1회 하더라도 각 방별로도 월 1회 정도로 준비해서 적은 인원이 오붓하게 여러 가지를 경험 할 수 있는 요리활동을 했으면 한다. 메뉴 정할때에는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한 식재료를 사용했으면 한다.
- 전체요리활동은 세시절기와 관련된 음식을 해먹는 것도 교육활동이다.
- 각 방에서 하는 요리활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 샌드위치, 카나페, 고구마라떼....등을 했었는데 좀 더 전통적인 방법으로 요리활동을 진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각두기...썩버무리... 등 요리활동 기구들도 각자에 맞게 개인도마(슬림시트) 준비되면 좋겠다. 전용커버는 어떤가 고민해보자.

장애통합교육

- 각 원에서 실내놀이가 힘들었다. 실외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세원,선화)- 선화어린이집 아이들의 생활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였다는 선화어린이집의 평가가 있었다.
- 씩씩한 7세 아바들의 평가도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였다.
- 씩씩한에 장애우가 들어오고 싶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 교사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우와 함께 지내고 있는 한사랑어린이집의 교육프로그램과 모습에 대해 정보를 알고 공유해야 함을 느낀다. 선화어린이집과 장애통합을 하면서 평가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상반기 평가 후 이후 한사랑어린이집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선화통합을 하면서도 한사랑어린이집에서의 장애통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의 참관도 필요할 것 같다.

연령별활동에 대한 평가

- 전체적으로 연령별 모임의 날을 즐겨하고 놀이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반기에는 볼 수 있었다.
- 하반기에 7세들의 낮잠을 고민하면서 연령별 모임의 날을 하루 더 늘려서 이틀을 진행했는데 대체로 6,7세 아이들이 연령별 모임날을 더 기다리고 좋아한 것 같다.
- 아이들은 더 즐거워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연령별 모임날이 늘어나니까 각 방 아이들의 놀이의 흐름이나 개별 아이들의 동선을 교사가 쫓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공유하고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사회는 연령별 모임날에 방아이들이 지내는 모습을 좀 더 밀도 있게 나누어야 하는 필요성이 느껴졌고 주 점검, 다음 주 교육내용을 공유하는 금요일 낮 회의 시간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까지는 부족해서 수요일 하루 더 낮 회의 시간을 확보하여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의 낮잠시간을 이용해서 낮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드는 하반기였다.



2012 하루이름에 대한 평가

생활리듬		시간	실행 및 평가		누리과정 영역
등원 및 자유놀이	7:30 - 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씨가와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물기를 닦고 간식먹을 준비하기 ● 체지리에 통일하기를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원하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 아이들의 기분과 건강 상태 확인하기 ● 아침식사 지도하기 ● 통일놀이 및 자유놀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p>하루생활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다. 특히나 계절적으로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기도 한다. 출근계 타전에 올 수 있도록 변경해 맞이하고 이때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맞이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등원하는 경우 아이가 잘 수 있도록 휴식공간이 적절히 제공되었던 것 같다.</p>	<p>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 예술·경험 언어·언어 자연·환경</p>
오전간식	9:20 -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에 앉아서 맛있게 먹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시간임을 알리고 모듬반에서 함께 먹기 	<p>9시30분 이후에 등원 하면서도 간식을 가져 오는 경우도 있는데 늦은 시간등원을 할 때는 식사는 가능한 집에서 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p> <p>양이 많고 식사에 가까운 메뉴를 배부르게 먹으면 아침 열기 시간이 나쁘게 지기도 한다. 점심 식사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식사량을 줄여 주었을 때 식사를 더 맛있게 마치기도 한다. 아이들의 노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 간소한 되어야하지 않을까? 간식을 킬게 먹으니 아침 모듬시간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대로 지낼 수는 있겠으나 놀이시간의 분절에 대한 아쉬움을 생각해보면 간식 시간의 변화를 주면 아이들에게 훨씬 긍정적인 것 같다.</p> <p>간식 시간은 그대로 두고 간식의 양을 줄이고 간식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려고 하므로 식사를 하고 등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더 먹고 싶은 아이들은 충분히 먹고 있다는 인내가 필요하다.(방 모임에서 공유)</p> <p>간식메뉴에 따라서 선택해서 먹는 아이들도 조금씩이라도 먹도록 지도하고 있다. 나들이에서 예너지 소모가 크므로 아침을 먹지 않은 아이가 간식을 거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겠다.</p>	<p>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p>
아침모듬	10:00 -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활동) 아침 체조 <p>노래 : - 아침 인사 나누기 - 손동작 전라놀이: - 소반, 안전 딱거리, 생활고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 카세트준비하기 ● 아침체조 함께 하기 	<p>아이들이 하루 일상을 잘 지내기 위해서 아침 열기 이전에 등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침 열기 이전에 등원 할 수 있도록 등원시간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하면서 지켜야한다는 내용을 전해주어야 한다. 아침 모듬을 나눈 아이와 나누지 않은 아이들은 차이는 있는 것 같다. 충분히 노는 시간을 확보 하려면 배운 등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유가 필요하다. 하루 흐름에 방해 받지 않고 교사도, 아이도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열기 모듬에 참여 하고 싶다.</p> <p>함께 모여 노래 부르거나 다리세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몸과 마음이 이완될 수 있도록 이발의 노래와 더불어 다양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를 벽면에 게시하고 나들이 전에 소근육을 이완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아침 모듬 시간에 체조를 함께 진행했다.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하거나 재미없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로 체조를 조금씩 바꾸어 진행하고</p>	<p>신체운동·건강 언어·언어 예술·경험 사회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모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생칼리들 확인하기 - 교사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신의 생각 이야기로 표현하기 		<p>체조시간을 7~10분 내외로 하는 것이 좋겠다</p> <p>노래 - 그 달에 해당하는 노래를 좀 더 불리는 것은 어떤가? (한곡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부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p> <p>열기시간- 아이들과 내용을 공유하다보면 열기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10시20분에는 열기를 마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자.</p> <p>차모듬- 차를 마시며 나누는 담소, 편안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함께 나누기, 아이들의 이야기를 메모를 하고 모두와 함께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고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를 만들어 초콜 피워 아담게 한다든지, 뜨거운 찻잔을 만지며 안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p> <p>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야 하지 않을까 - 이전의 경험을 챙겨 보고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p> <p>-우리 안에서 지켜야하는 우리의 약속,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p>	
<p>나들이</p> <p>1030 - 12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들이 규칙지키기 ● 나들이 꼭 정하기 ● 자연의 변화 및 지색화면서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나들이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 이동하면서 함께 자연의 변화 및 지색화면서 이야기 나누기 ● 장소에 적힌와 놀이 상각해두기(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 아이들과의 마주 이야기 기록하기 	<p>전체 나들이는 모두가 함께 하는 나들이이므로 이동 과정에서 큰 아이들이 동생들과 속도를 맞추는 배려가 여전히 필요하다.</p> <p>나들이는 자연 자체에서의 오감 활동, 수집한 자연물로 표현활동,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창의적인 활동임으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쉽게 담을 주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피하고, 자연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충분히 자연을 만끽하도록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 놀이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기다림이 필요하다.</p> <p>연령별 날이 늘어나서 나들이도 더 다양하게 진행된 것 같다. 날씨가 추워서 나들이 진행이 용이하지 않을 때도 산책정도만 진행되었다.</p> <p>9시30분 교사가 나들이 가방 챙기기 - 긍정적평가</p> <p>소방도로-차기 간헐히 다니는 길 -- 한쪽으로 다니기에 대한 공유가 계속 필요하다.(안전에 대한 열려)</p> <p>나들이 때 편한 옷과 신발 - 나들이에서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 편한 복장을 가지는 것에 대해 아이들과 나누고 약속을 만들어가는 것을 시도 하자.</p>	<p>산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 예술경험</p>	
<p>점심 손씻기 이담기</p> <p>1200 -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를 지켜 밥과 반찬을 먹음만큼 말고 자리에 앉아 기다리기 ● 스스로 먹기 ● 스스로 양치하기 ● 음식의 맛과 냄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우미 역할을 주어 할 깨 점심 준비 하기 ● 자리를 지켜 밥과 반찬을 먹음만큼 말고 자리에 앉아 기다리도록 지원하기 ●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p>방별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느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야기까지는 괜찮으나 몸동작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p> <p>좋아하는 반찬만 먹으려고 하고 하는 경향, 싫어하는 반찬도 조금이라도 먹어보게 한다.</p> <p>하반기로 갈수록 먹는 양이 많아진다. 밥과 국을 섞지 않는 것, 풀이다니면서 먹지 않는 것도 많이 안정이 된 것 같다. 하반기로 갈수록 전반은 거의 없었다.</p> <p>음식을 들으면 식사 했을 때 아이들의 목소리 톤을 음악소리보다 낮은 소리로 조절할 수 있어서</p>	<p>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p>	

<p>오후간식 - 4: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씻고 제저리에 앉아서 맛있게 먹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저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p>간식상 준비를 7개월님들이 잘 해주었던 것 같다. 차고 일어나서 간식을 먹는 것이 간식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이 있다. 전간식과 같이 텅텅한 음식은 덜 먹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이 간식시간에 모두 내리앉는지 확인해보기-2층 등 다른 공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원 점검이 필요하다.</p>	<p>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p>
<p>오후활동 - 4:40 -5: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속된 공간에서 놀기(상필에 따른 사전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질감의 종이와 크레파스, 파스텔 색인 펜 준비해주기 • 아이들의 활동 특성 관찰 기록하기. 	<p>담금초 만들기, 직조하기 등을 진행해 왔으나 활동을 하면서 정해진 구역의 아이들을 함께 관찰해야 하므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전통 놀이나 전래 놀이(예: 고무줄 놀이, 공기놀이, 줄넘기, 씨름하기등) 의 시연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어서 아이들의 자유놀이가 활성화되도록 해야겠다. 더불어 7세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놀이 를 전하는 역할) 만다라는 명상을 하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정적인 활동이므로 단순한 책 읽 공부 가 되지 않도록 각 방에서 활동 후 느낌 나누고 제목과 아이들의 이야기 내용을 적어주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챙기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한다. 오전 간식 전과 낮잠에서 깨어 오후 간식 전에 하는 것을 아이들과 공유하고 그 시간에 진행하고 있다.</p>	<p>자연탐구 예술경험</p>
<p>자유놀이 및 귀가 - 5:00 - 7: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놀이 오시면 부모님이 놀던 놀잇감 정리 하고 귀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보육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귀가하기 • 부모와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귀가 인사 나누기 	<p>아이들과 하원시간에 대한 설명이 는 여전한 것 같다. 마실은 부모들이 미리 약속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갈 때는 아이들이 놀던 자리의 실내외 놀잇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도와주셨으면 한다. 놀이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20분정도)을 주고 아이들도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도 나누고 연계갈래보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해서 아이들과 하원시간을 정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할 것 같다. 등원할 때처럼 하원할 때도 즐겁게 인사하고 헤어졌으면 하고, 마실을 갈 때나 다른 분이 아이를 데리러 올 때는 꼭 교사회에 전달하기 바란다.</p>	<p>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p>

● 씩씩한 어린이집의 모습

씩씩한의 일상...



| 해바라기 방과후 |

김병현, 류선희
(토토로, 포도)

✿ 이 달의 행사 : 3월 4일 고산초등학교 입학식

✿ 한 주 흐름

월	화	수	목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와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을산 기지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 나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 회의와 공동체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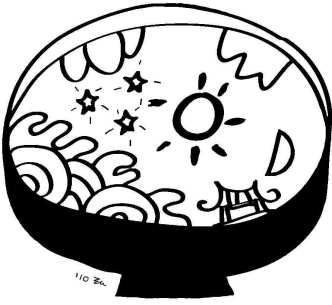
✿ 이 달의 계획

- 기본 생활습관 잡기
- 각방 꾸미기
- 각방 도배

✿ 3월 일정

월	화	수	목	금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산초입학식 청소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지산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 공원 	<p>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활동 	<p>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근모듬 도배 작업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와함께 청소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지산 	<p>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 나들이 	<p>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활동 	<p>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근 모듬
<p>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와 함께 청소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지산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도서관 	<p>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활동 	<p>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리활동
<p>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바라기대회 청소 	<p>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지산 	<p>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 나들이 	<p>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활동 	<p>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근 모듬

● 해바라기 방과후_3월 식단



해바라기 맛있는 3월 식단

강유정(해바라기 달고나)

월	화	수	목	금	
4	5	6	7	8	
점심	참치김치찌개 감자햄볶음 콩나물무침	시금치국 어묵피망볶음 김자반무침	오므라이스 콩나물국	소고기무국 계란말이 가지볶음	미역국 제육볶음 양배추쌈
간식	잔치국수	야채스프, 빵	떡만두국	어묵탕	안혜승생일
11	12	13	14	15	
점심	김치콩나물국 파프리카햄 볶음 무생채	근대국 두부양념구이 숙주나물	짜장밥 계란탕 단무지	두부된장국 닭봉조림 오이무침	감자복어국 오징어볶음 시금치무침
간식	군만두	떡볶이	핫케익, 우유	딸기요플레	옥수수스프, 빵
18	19	20	21	22	

점심

간식	조랭이떡국	김밥	궁중떡볶이	찐빵, 우유	라면
25	26	27	28	29	

점심

간식	김채원생일	찐만두	토스트, 우유	김현동생일	정해균생일
----	-------	-----	---------	-------	-------

* 식품원산지 - 쌀, 잡곡류, 쇠고기(한우), 돼지고기=국산/김치(직접담금)-배추, 고추가루=국산/ 생선=국내산

* 식품구매 및 터전사정에 따라 식단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2 연간 교육평가

손끝 활동

- 직조 짜기, 바느질, 가방 만들기, 황토염색, 치자 염색, 나무 목걸이 만들기, 나무조각품 만들기, 의자 색칠하기, 카프라 만들기, 만다라, 이면지노트 만들기, 뜨개질, 색종이 접기
- 하고 싶어서 한 아이는 부모님께 선물 내지는 자기의 것을 소중히 챙겼다.
- 대부분의 손끝 활동은 원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진행된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진행된 활동에서는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 기간의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인기 있는 활동에 너무 몰리지 않도록 교사들의 분산작업이 필요하다.
- 총평 :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분명하게 갈려져서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만으로 진행 했다. 황토 염색과 치자 염색은 모든 아이들에게 참여하도록 교사의 강권이 있었다. 아이들의 의지가 아니라 교사의 의지였다. 그래서 아이들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해 손수건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버려두는 아이들도 있었다.

일상생활

- 양치질은 교사들이 열심히 점검하며 아이들을 독려 했지만 상당한 아이들이 양치하기를 귀찮아했다. 교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를 해왔고 앞으로도 습관을 들이는 차원에서 계속 양치를 잘 하도록 강조할 것이다.
- 알림장 검사는 1, 2학년 위주로 점검했는데 잘 보여주는 아이들은 잘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모른 채하기 일쑤였다. 숙제가 있는 아이는 일부러 더 모른 채하고 놀기에 바빴다. 2013년에는 알림장은 먼저 확인하고 숙제하는 시간을 간식시간 이후 조금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알림장은 먼저 확인하도록 할 것이다.
- 가방, 사물함 정리는 다소 극명하게 갈렸다. 잘 하는 아이는 잘하고, 안하는 아이는 계속 가방과 옷을 아무렇게나 던져 놓기도 했다. 종종 사물함 정리를 통해 분위기를 바꿔왔으나 조금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되기를 반복했다. 이제 사물함을 학년별로 챙길 수 있도록 해서 가방과 옷과 여러 물품들을 자기가 스스로 잘 관리하도록 습관을 지게끔 하려한다.
- 신발정리는 이것도 반반 정도 하고 있다. 나중에 잘하던 아이도 그냥 벗어둔 채 들어오는 경우가 생겼다. 이것은 교사가 계속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말하는 수 밖에 없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속 말을 해야 한다.
- 일상의 자기물건 치우고 정리하기는 방과후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쓴 것은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탐구활동

- 디카 사진 찍기 : 초반에 진행을 몇 번 했으나 디카가 다 마련되지 못하고 아이들의 관심도 차츰 멀어지게 되어 상반기만 하고 접었다. 일단 아마들의 관심이 멀었고, 개인 디카 준비가 안 되어 돌아가며 쓰다 보니 아이들이 조금만 하고 다른 아이에게 넘겨야하는 상황이 못 마땅한 것 같았다. 그래서 각 아이마다 찍은 사진이 적고 고를 수 있는 사진도 별로 없었다. 이 활동은 좀 더 꾸준히 해서 자기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처음 시작이 미약하게 되어 점점 관심도가 멀어지게 되었다. 교사도 디카가 준비가 안 된 아이들과 진행해 나가는 것도 한계에 부딪혔다. 사진 전시회도 못하게 되어버렸다.
- 천을산 나들이 : 아이들이 대체로 천을산 나들이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막상 가면 잘 노는 아이들인데 그냥 나들이 개념으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 같다. 2013년에 천을산을 계속 나들이 형식으로 다녀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겠다. 천을산 놀이터를 정하고, 곳곳에 있는 장소를 놀이터 형식으로 소개하고, 아이들과 그 놀이터에 놀러가는 형식으로 산 나들이를 다니는 것이 좋겠다. 아이들과 천을산 곳곳의 장소에서 무엇을 하며 놀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이름을 정하는 작업을 초반에 해야겠다.
- 텃밭 : 대체로 가꾸기 위주보다는 한 번씩 관심을 기울이는 쪽이었다.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가까이서 작물을 키우고 자연스런 자연탐구 활동이 되도록 분위기를 잡아 나갈 생각이다. 키운 작물로는 감자, 배추, 오이, 벼, 토마토, 가지, 호박
- 동물 키우기 : 토끼를 키웠다. 그리고 잘 데리고 놀았다. 중간에 한 마리가 왔다가 없어진 일이 있었지만 토리는 강아지 마냥 터전을 떠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지금은 햄스터 네 마리가 와있어 아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몸놀이

- 운동 : 피구, 야구, 축구, 농구, 훌라후프, 줄넘기, 달리기
- 명상 : 상반기 진행을 했으나 점점 아이들이 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 후반기엔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만다라는 계속 해나갔다. 나중엔 하고 싶은 아이들 위주로 되었다.
- 2013년에는 대신 몸 풀기 스트레칭을 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이다.
- 자전거 타기 : 전체 타기보다는 개별적인 자전거 타기가 많았다. 타기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 자전거 준비가 덜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연말이 가까워서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게 되었다.
- 전통놀이(마당놀이) : 절기에 맞게 놀기도 하고, 여러 놀이를 통합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했지만 몇몇 아이들은 함께 움직이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 모습이다.
- 집 뺨기, 깡통 차기, 술래잡기, 경찰과 도둑, 강 건너기, 비석치기, 사방치기, 딱지치기,
- 숨바꼭질, 찰각, 그물 술래잡기, 자전거타고 술래잡기, 탈출놀이, 태극기, 고무줄놀이, 큰 줄넘기

관계 및 특별활동

- 자는 모듬 : 총 두 차례 진행된 자는 모듬은 아이들의 편안함 속에 익숙한 환경에서 함께 어울려 자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집에 가는 일이 생겼으나 그 뒤엔 점점 줄어들었다.
- 들살이 : 들살이는 아이들의 참여가 좋았고 아이들의 기억 속에 좋게 남아있다. 여름 상주 들살이에서는 아이들 스스로 여행하는 시간을 가져서 더욱 기억에 남았고 겨울 들살이는 얼음에서 맘껏 노는 시간을 가져 아이들이 좋아했다.
- 단오 : 단오 행사를 터전에서 준비했는데 만장 만들기, 길놀이, 부채 만들기, 창포 머리감기, 떡매 치기를 했다.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고 길놀이에서 아이들의 참여가 많았다. 이후 풍물 활동을 연계해 진행 했다.
- 작은 무대 : 우리들끼리 무대에 선 작은 무대는 두 명 이상의 아이들이 협력해서 만든 무대이다.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잘하기보다는 호흡을 함께 맞추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 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오는 것이 부끄럽다며 다 초대하지 말 것을 주장해서 우리들끼리 참여하고 관람하는 작은 무대를 꾸미게 되었다. 차후 큰 무대라는 이름으로 발표회를 계획했지만 아이들의 반응이 미지근해서 어찌 분위기를 살릴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의사소통

- 연극놀이 :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통합 또는 학년별 활동으로 진행했다. 처음엔 놀이위주로 진행된 연극놀이에서는 큰 관심을 나타내었으나 책을 보며 표현하는 시점부터 아이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한 번에 많은 아이들이 같이하다 보니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러한 활동은 모듬별 진행이나 선택활동으로 전환해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다수의 인원은 아직 무리인 것 같다. 세심한 수준별 준비가 필요하다.
- 카드 만들기 : 생일 카드 만들기가 주를 이루었는데 여자아이들은 열심히 만들었고 남자아이들은 대충 만드는 정도이나 해균이와 몇명은 상당히 돋보이는 카드를 만들기도 했다.
- 등근 모듬 : 아이들끼리 회의가 진행되진 못했다. 아직 저학년 중심이라 원만한 회의가 어려워 교사의 진행으로 모듬이 진행되었다. 전달 형식과 주고받으며 이야기하기를 많이 했다. 등근 모듬을 항상 하기보다는 일이 있을 때마다 했고 모이는 것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회의는 3학년 이상의 아이들과 진행해야겠다. 아직 1,2학년은 회의 자체가 어렵다. 등근 모듬은 모두가 공유해야할 것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 활동 평가 : 큰 활동이나 들살이 행사 이후 아이들의 생각을 묻는 평가를 진행했고 설문지 등을 통해 가볍게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느낌과 감상을 간략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삼았다.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여 계속 캐묻게 되는 일이 생겨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하고 설문을 통해 생각을 엿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마저도 서로 보며 베껴 적는 일이 많아 정확한 자기이야기가 안 될 때도 많았다.
- 남녀 활동 : 여자아이들은 포도와 함께 움직이며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다. 대체로 같은 성끼리 어울리며 더욱 돈독한 시간을 보냈다. 남자아이들은 대체로 모두 운동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냈다. 웬만하면 모두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

2013 교육계획

1. 교육 목표

- 1) 삶과 교육의 일치
- 2) 아이들의 가치인정
- 3)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육

2. 해바라기 방과후 교육과정

- 생활 문화 교육 : 기본 생활 습관, 마당놀이, 손끝활동, 표현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 생태 교육 : 먹거리 교육, 자연 탐구활동, 숲속 놀이, 동식물 기르기
- 관계 교육 : 아이들 사이, 아이와 어른 사이, 놀이 문화, 회의 문화, 모듬 활동, 들살이
- 통합 교육 : 공간과 시간의 통합, 양성성 교육, 계층과 문화 통합

3. 교육방향

-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할 일은 스스로 하는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발하고 실험, 실천 하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 여유로운 생활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방과후 생활이 되도록 하고 실천적 경험을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노력한다

4. 교육운영

- 교사 : 3인체제 - 김병현, 류선희, 임효정, 영양교사 : 1인
- 아이들 : 총 인원 - 30명
 - 1학년 - 14명(남-9명, 여-5명)
 - 2학년 - 5명 (남-2명, 여-3명)
 - 3학년 - 6명 (남-5명, 여-1명)
 - 4학년 - 3명 (남-2명, 여-1명)
 - 5학년 - 2명 (남-2명)

5. 방구성

- 포도 (10명)
 - 이학년-한서준, 정수아, 신다안,
 - 일학년-홍소정, 김채원, 박찬홍, 박찬중, 김동현, 이시훈, 이현민

- 임효정 (9명)
 - 이학년-최장민, 전기연
 - 일학년-전유설, 안혜승, 김민소, 김현동, 박주하, 문환주, 권오빈

- 토토로 (11명)
 - 오학년-박병준, 정해균
 - 사학년-김채환, 박찬우, 정석영
 - 삼학년-김동현, 박찬희, 정강민, 신세하, 최장범, 최문영

6. 공동육아 방과후의 생활 흐름의 원칙

- 인위적으로 시간을 분절하지 않고 생활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흐르는 생활
- 학교, 방과후, 집을 오가는 아이들의 생활 흐름에 맞춰 긴장과 이완이 적절히 배합된 생활
- 교사가 주도하는 생활이 아니라 아이들의 관심에 따라 시작하고 진행하고 변화시키는 생활
-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맞춰 몸과 마음이 조화롭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적절히 발달하는 생활
- 계절과 학교의 흐름 및 변화에 맞춰 흐름을 함께 하는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

7. 방과후에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 쉼과 여유가 있는 생활
- 아이들의 생활 리듬, 아이들의 발달에 따른 생활
- 아이들이 할 일은 아이들 스스로 하는 생활
- 땅을 밟고 자연을 느끼고 경험하는 생활
- 아이들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 **해**

2013 연간 계획표

구분		2	3	4	5	6	7	8	9	10	11	12	1
몸 놀이	피구,야구 등	실내 피구, 야구 시작 봄이 되면 실외에서 진행											
	스트레칭	스트레칭											
	자전거	자전거타기시작, 자전거 탐험											
	전통놀이	절기와 계절에 맞는 전통놀이											
손끝 활동	수공예 목공 염색, 색종이	직조짜기, 색종이 소품 바느질		목공 협동작품 만들기 1인 1작품 만들기		염색		놀이 감		뜨개질, 바느질, 가방 만들기			
의사 소통	책 읽기 마음 읽기 들어 주기	책 읽기와 읽어주기, 생일카드, 등근 모듬, 회의, 수다 떨기											
관찰 자연 탐구 활동	천을산 텃밭 동물 키우기	천을산 나들이, 텃밭 가꾸기, 주변 공원 나들이, 월 1회 요리 활동											
관계 활동	모듬활동 공동체놀이 월1회 해바라기대회				자는 모듬					자는 모듬			
특별 활동	들살이 해바라기마당	들살 이		운 동 회 준 비		단 오		들 살 이		방과 후 여는 날		해바 라기 마당	

● 해바라기 방과후 모습

해바라기 일상...



소모임 이야기

양파키우기

이정연(해바라기 정해균.수아엄마)

지금은 상주에 귀농한 꿈꾸는나비가 2009년 해바라기 교육소위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풀어놓아 생긴 모임입니다. 참여자가 만원씩 내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강사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주에 귀농한 향유아빠, 사회운동가 권슬룡관장님, 윤택규교장선생님, 이호철선생님, 옛이야기 수집가 서정오선생님, 경주환경운동연합 김익중의장님, 토토로선생님, 녹색당 변홍철선생님, 농부 전희식선생님, 경산시립박물관 김은진학예사, 시승훈모, 환승모, 동현모 등 많은 분들이 강사로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지요.

민들레읽기 모임

이정연(해바라기 정해균.수아엄마)

격월간으로 나오는 대안교육잡지 민들레를 읽고 홀수 달 셋째 주 월요일 해바라기에 모여 교육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해바라기와 씩씩한 아마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자리이므로 씩씩한 아마들이 오셔서 아이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시면 먼저 겪어본 해바라기 아마가 조언도 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대답은 '기다리면 된다'겠지만요. 몇 달 전 민들레에 이 모임을 홍보하고 난 후 공동육아 식구 이외의 분들이 오셔서 좋은 기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므로 누구나 시간 되시면 가볍게 나오시면 됩니다.



캠핑소모임

박주보(박찬희/채희/서희아빠)



캠핑스케치는 언젠가부터 캠핑인구가 급증하여 우리 터전도 2012년부터 터전 내 캠핑가구들이 늘어나 조합원 간의 화합과 자연 친화적 취미 활동을 하고, 또 현재의 조합원과 터전을 졸업한 조합원 가구들 사이에 계속적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러 뜻을 모아 출발한 소모임입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며 카페 주소는 <http://cafe.naver.com/piiko94> 입니다.

회원 수는 현재 기준 29명이며 명예 조합원 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며 연간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단체 캠핑도 가고, 캠핑장 소개, 캠핑장비 소개, 또 캠핑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장비 나눔의 기회 제공 및 공동 구매하기, 캠핑 다녀온 캠핑 후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캠핑은 누가 뭐래도 자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많이 건강해 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취미생활이라고 자부합니다. 혹자는 '캠핑이란 남자들은 불장난하는 것 여자들은 소꿉장난하는 것'이라하였는데요. [남녀 차별적 발언인가!?!? ㅋㅋ] 하여튼 자연을 생각하는 건강한 소모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터전 식구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해 소모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 단체 캠핑 이벤트 준비 중 임되~

~ 많이많이 가입해 주시구.... 에~~또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해주세요..  + 



● 터전소식

씩씩한 터전소식

장순향(씩씩한 이수하엄마)

아! 연수 후유증...

터전에는 글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

말을 조리있게 잘 하는 사람도 많다.

요리조리 피해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느끼는 순간 겁도 없이 털컹 터전소식을 내가 하겠노라고 큰소리 뽕~ 쳐버렸다. 나의 성격을 잘 아는 주변의 걱정스런 눈빛에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그래 하면 될거야~ 할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추스리며 연수 후유증이 덜 가신 몸으로 이렇게 터전소식을 전하러 한다.

2월의 터전은 일년 중 가장 변화가 많은 달이 아닐까 싶다. 정들었던 7세들과의 이별, 방이동, 설날, 정월대보름, 터전 대청소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의 등원까지.....

대청소 이야기

3월 초에 준공이라 방학내내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하는 수하야빠대신 간만에 수하모가

살짝(?)늦게 갔더니 정해진 시간 무시하고 다들 청소를 거의 다 해버렸다. 헐~~~

무진장 미안한 마음에 그날 벌금 시원하게 내고 주방서 부침개만 열심히 했었는데.....요샌 각각 벌금이 모이지 않아서 운영 재정이 바닥이라는 후문이 있드만요.....^^

몇 분정도는 가끔 지각도 해주는 센스~~~^^

졸업 이야기

2월 들어서면서 해바라기로 등원하게 된 7세방 형님(?)들의 졸업식이 22일 저녁에 있었다. 4세 때 기저귀를 겨우 떼고 등원했던 보송보송 귀엽던 어린방 시절부터 씩씩한 모든 아이들의 로망 7세 큰형님방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보면서 졸업방 아마들은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다. 그리고, 졸업상장으로는 다정다감상, 될 때까지 노력상, 미래여우주연상, 꾸준히 노력상, 약방의 감초 어린이상.....등 아이 하나하나와 너무나도 꼭 맞는 맞춤상 덕분에 그 감동이 배가 되기도 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양초선물과 함께..... 꿈꾸지 않으면 사는게 아니라고~ 별헤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하네~~~~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의 어떤 졸업식보다도 감동적인 졸업을 했다.

새 가족 이야기

올해 8세가 해바라기로 등원한 후 씩씩한에는 본격적인 2013 신규 아이들과 아마들의 등원이 시작되었다. 대체로 잘 적응하고는 있지만 낮가림이 심한 아이도, 아마도 있으니 신규 아이들이나 아마를 만나면 꼭!꼭! 이가 16개 이상 보이게 활짝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길.....


박소영/재완/재형, 권태오, 우현준/서현, 김현준 그리고 박세방의 건우, 도은이, 송주, 서희, 민주까지.....등하원시 3명 이상은 꼭 찾아봐주시길 바래요^^

신규가족들의 비밀회합?

삼일절 저녁에 신규 다섯가족과 도우미 네가족의 비밀이 될 뻔했는데 루다부의 발설로 인해 공개가 되어버린 신규와 1년차 도우미가족의 만남이 씩터전에서 있었다. 이에 송준서네와 이수하네는 같은 일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도우미로 발탁되지 못한 아쉬움을 떨칠 수 없어 부랴부랴 달려갔다. 그리고 보니 작년에도 우리에게 도우미 가족을 배치시켜 주지 않았던 것 같다. 2년을 거듭 명확한 설명도 없이 우리를 ‘따’시킨 이사진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준서네와 진지하게 의논해봐야겠다.

터전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부터 음식 냄새가 진동하더니.....사람들도 음식도 완전 잔치 분위기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린 음식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신규가족의 서먹함이 조금은 풀어졌으리라 믿는다.

한창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유채부녀의 상봉이 펼쳐져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다. 혹시 그 모습이 궁금하시면 그날의 아마들에게 물어보시길~~~

홍보소위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기위해 원고청탁만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터전소식을 내가 함 해보겠노라고 덜컥 말해 버린 후 글쓰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수하맘은 매일 글쓰는 꿈에 시달리며 10여일을 보냈답니다. 우리가 보기에 쉽게 글을 써 주시는 선생님도, 아마들도 무게는 조금 다르겠지만 부담은 가지실거란 생각에 청탁 때마다 흔쾌히 글을 주신 모든 아마들이 어찌나 고맙던지..... 이 자리를 빌어 씩씩한과 해바라기의 모든 선생님과 아마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 터전소식

해바라기 터전소식

권미전(해바라기 김채환엄마)

막강 1학년 등원

해바라기를 가득하게 하는 8세가 2월부터 등원 (박찬중/찬홍, 이시훈, 김현동, 문환주, 이현민, 권오빈, 김동현, 김민소, 김채원, 홍소정, 안혜승, 전유설)하고 있습니다.

씩씩한 졸업생 12명과 예쁜 언니(전기연 해바라기 2학년)를 꼭 닮은 동생 전유설이와 귀에 익숙한 김동현이 1학년에 등원했습니다. 채환이가 “1학년은 일동이, 2학년은 이동이~ 어때? 내가 만든 거야 쉽지?”합니다. 새로운 잘 생긴 얼굴은 김동현입니다.

Q. 방과후 오니까 뭐가 좋아? (노느라 대답이 짧음)

- 언니들하고 노는거
- 재미있으니까
- 장난감 할 수 있어서
- 나는~ 음~ 방과후는 재미 있는데~ 음~ 썩썩한이 궁금해! 왜냐면 다른 아이들도 동생들 누가 왔는지 궁금해. 같이 노는거 재미있어. 그림 그리는 것도 재미있어~~ (미소^^)
- 음~ 모르겠어(한참 생각후...) 썩썩한은 낮잠 자는데 해바라기는 낮잠 안자니까 좋아

Q. 동생들 오니까 어때?

- 음~ 씨꿀 벽적해 (머리에 땀 가득히~) 예전에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많아서 좋아
- 애기 놀이 하는 거랑 친구 놀이 하는 거, 애기 놀이 할 수 있어서 좋아
- 시끄러워 졌어

포도선생님

“점심 식사를 34~35명이 식사하니 가득 차요. 그런데 이 많은 애들이 동생들과 다툼이 없어요. 얼마나 잘 노는지(함박 가득한 미소^^) 한 달 무사히 산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병준이가 앞장

서면 1학년들은 전부 병아리가 되어 쫄쫄 따라다녀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마당에는 물길 만들기, 마루에는 비석치기... 구석구석 떠들썩합니다.

달고나선생님

해바라기에 영양선생님 달고나(강유정)는 고산초에 두딸(2,4학년)과 함께 월드메르디앙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 살아보신 소감은 짧게 “처음하는 일이라 힘들지만 애들이 재미있어요”. 3월은 1학년뿐이라 조용하고 불편한 주방도 많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고산초 졸업식

썩썩한과 해바라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고산초등학교 78회 졸업생으로 졸업식을 했어요. 유지현, 양지혜, 이현빈, 남아영, 육현수, 김주홍, 김지환. 썩썩한과 방과후에 있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답니다.

효녀 서희네 이야기

찬희,채희,서희네 엄마가 짧은 3년 육아휴직을 끝내고 고산노변중학교로 출근하셨습니다. 숨은 이야기는 과학선생님자리가 세자녀 특혜(?)로 특별이라는 소문이 있어 효녀 서희가 되었습니다. 재미난 소식은 고산노변중학교에 해군수아모와 함께 시훈규언모, 환승부, 서희모 네 분이 함께 근무하게 되었답니다.

하랑맘 청도로 발령~

하랑맘이 청도 동곡초등학교로 출근합니다. 하랑, 하민이도 함께 갈 듯합니다. 전교생 34명에 4학년이 2명뿐이라 회장도 하고 1등도 할 것이라 합니다. 저도 쏠깃~하네요. **하**

● 날적이 돌아보기

이번 달엔 의미있는 날적을 2편 실었습니다.
2002년, 20개월의 김지환과 2004년, 5살 이준서의 날적이입니다. 함께 터전생활을 하며 코짹짹
흘리던 지환이와 준서가 올해 드디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 두 씩씩이를 사진에서 찾아보세요^^ >



Notes 두이 점. 성인미니 마실 잤다 왔어요.
늦은 10시 까지 지환이 자다가 양로 불알잡니다.
근차 작은차 타는차. 차관거등등... 지환이에 즐거워
한 모습의 얼굴에 넘치네요. 이문권의 움직이는 장난
감에 흥미를 느끼며 신기해 하네요. 공동육아에 듣기만
하면 아슬아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다른
(성인미니 한여니 성인방이 다문였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
명하는 영미들을 정말 재미 있게 보냈어요. 어현아집에 40시
같은 이야기 들로 귀담아주세요. 즐겁게 보냈습니다.
지환이여 늘봄이 저에게 까지 온것 같아요.
어현아집 다른 아이들이 걱정 타네요. 가벼움 연재는
별로 나아라 할래요..... 요즘 많이 힘드세요 힘내세요
영미에 선생님과 지환이가 작은 (말투) 수선아 없네요.
이번 신문에 각 찍어주세요. 기쁨은 영미에
늘이 두려요. 생생 재미 있게 다녀주세요.

- 지환 엄마 -

2004. 10. 11. 원

요즘 주서의 반항(?)이 점점인것 같아요.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이 쉬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성악을 시켜야 할까 보네요. ㅎㅎ 그리고
 주서도 항상 일찍 데깁러 온다고 하는데,
 어둡기 전에 밝을때 데깁러 온다는 뜻인것
 같은데, 저보고 밤에 데깁러 인지 말고
 꼭꼭 아침에 데깁러 온라네요.
 지금 주서 옆에서 날락이 적는것 보곤
 "기차여행 가시는 소리를 안지른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적으라네요. 그리고 "풍선
 미안해. 내가 양치질 바빨라 가서 할게요"
 라고 말하네요. 언행 일치가 안돼서
 그렇치 알진 아는것 같아요. 옆에서 계속
 뭐라 하면서 적으려는데, 항당한 내용이
 많아서 다는 못 적겠어요.
 눈을 보니까 많이 피곤 하신것 같던데,
 알면서도 일찍 데깁러 못가서 마음이
 편찮 않네요. 감기 조심 하시구로 건강하시길
 바가면서 ...



— 주서 일기 —

편집실을 마감하며...

.. 이상영 홍보소위 이사, 씩씩한 이하람아빠

작년 이맘때 소식지 편집후기를 보니.....

[첫 소식지를 잘 낼 수 있을까! 아자아자! 화이팅]했던

12년 홍보소위분들 한 해동안 대단히 수고하셨고, 이제 부텀 13년 홍보소위가 접수합니다 ㅎㅎ
ㅎㅎ...라고 하고 싶지만, 만만치 않네요.

3월부터 스타트인데 13년 홍보소위원분들도 덜 꾸려진 상황에서 3월4일 소식지가 나와야한다니.
게다가 2월은 또 왜 이리 날수가 적은건지요 ㅎㅎ

그럼에도 소식지가 무사히 나온다면,


원고 청탁하시느라 원고 받으시느라 마음 쓰셨던 몇 안되는(?)홍보소위분들과

지금도 소식지 한 장 한장 꼼꼼히 편집 중이신 편집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서준엄마께서 구글문서공유시스템으로 원고취합의 혁신을 몰고와 주신 것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조합식구 여러분~

앞으로도 원고 청탁드리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홍보소위원들 마음 다치게 하지 말아주세요ㅠ네? 네?( 굵신굵신)



그리고 13년 홍보소위의 심심한 명칭을 '명랑홍보'로 정했습니다.

조합생각들을 명랑하게 잘 담은 소식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명랑홍보소위 파이팅 ~~



P.S. 매월 소식지밤샘작업해주신 재욱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터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 

월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통권 98호

- 발행일 2013년 3월 1일
- 발행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 발행인 정범철
- 편집위원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홍보소위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64-6 (우)706-220
- 전화 053-791-6879
- 홈페이지 <http://cafe.gongdong.or.kr/siksikan>